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月)
本紙朝夕刊十面

汪氏後任問題中心 各派의策動激化

胡漢民氏의出馬運動露骨的 陳立夫氏四川에急行

【電通上海十一日發】汪精衛氏의 辭表提出結果 次期政權을 中心으로 各派의 暗躍이 頻繁히行하고잇는데 胡漢民氏의 推戴運動이 가장 露骨的으로 同派는胡氏의 行政院長은 確定的이오 또 近日國府內의 大改組가 잇스리라고 放送하고잇다 또從來 反汪氏派의 巨頭로指目되는 陳立夫氏는 汪氏의 留任妨害의 策動을 맹렬히 繼續하고잇서 陳氏는 十二日 飛行機로 四川으로가서 蔣介石氏에게어떠한 進言을 할터이다

【南京十一日發聯合】汪精衛氏의 辭表提出에對하야 政府首腦部는 主席林森氏以下 極力慰留에 努力하고잇스나 何等具體的對策이 업고 問題는去益重大化하는兆候를보이고잇다 中央으로서는 本問題에 對하야 아직正式討論도 行하지안코 汪精衛氏慰留次로靑島에 赴한 中央黨部秘書長葉楚傖氏 立法院長 孫科氏의 歸來를 기다려 來十四日 中央常任의 會議에서 그辭表를 正式으로 討議를 開始하기로되엿다 一方事實上의 決定權을 가진 蔣介石氏는 四川成都를떠날模樣도 보이지안코 또本問題에 對하야는何等 明確한意思表示를 하지안코 輿論의推移를 凝視하고잇는現狀인바 這間에잇서 汪精衛氏擁護派及 反對派의 策動은益益 激化할뿐으로 그대로 放任할時에는 結局 政府瓦解의 破局에到達할 憂慮가잇슴으로 蔣介石氏의 即時 明確한 措決을要望하는소래가 놉다 (寫眞은 胡漢民氏)

汪氏問題 衆意에一任!

個人으로慰留하고십흔意向 蔣介石氏의意思表示

【電通上海十一日發】汪精衛氏의 辭意通電은 即時國民政府로부터 四川에잇는 蔣介石氏에게 轉電되엿는데 蔣介石氏는 아직何等의 意思表示를 하지안코잇슴으로 十一日朝 于右任、孫科、居正三氏로부터 何等의建議를 求한다는바蔣氏의 請訓을發하엿든바蔣氏로부터 汪行政院長의 辭職通電에 對하야 余一人으로서는 慰留할 意向이나 그進退處置에 關하여는 卿等의處置에 一任한다 그리고 余는 右에聽從하겟다라는返電이잇섯다

王寵惠氏 後任으로有力

【電通上海十日發】汪精衛氏가 國民政府部內 各方面의 慰留에 應하야 辭意를 撤回할 與否는 重視되고잇는바인데 汪氏의側近者는 汪氏今回의 辭意提出은 全혀 自己의 宿痾에 依한것으로 假令 慰留하더라도 復職은 到底히 困難하고 또 復職한다 하더라도 實務를 보기는 全혀 不可能하다 라고 稱하고잇다 그리고 汪氏가 辭意撤回를 不肯할時에는 國民政府當局은 即刻 行政院長의 更迭을 行하지안코 長期休暇를 與하는形式으로 汪氏에게 休養을 하기로되어 이동안에 歐米派의 有力分子는 自派의 有利하고 또 日本側과도 良好關係에잇는 現國際司法裁判所判事王寵惠氏를 新行政院長에 擁立하려고 目下 쥬네브에잇는 王寵惠氏에게 對하야 至急 歸國을 督促하는 電報를 發하엿다고 傳한다

【上海十日發聯合】汪精衛內閣에 代할 新內閣에 關하야 王寵惠、孫科、孔祥熙氏等의 說이잇스나 結局 司法院長居正氏의 行政院長說이 漸次 有力化하고 外交部長에는 政學系의 張群氏가 가장 有力하다 新內閣은 第六次中央執監委全體會議를 압두고 組織될터인데 或은 現在의 王寵惠氏의 院長代理, 徐謨氏의 部長代理를 그대로두고 中央全體會議를 行한後 改組할는지 中央의 意圖는 아직 決定되지안헛다 新內閣이 如何한 系統에 屬하더라도 現在의 日中關係로 보아 中國의 對日外交는 急角度의 進展을 加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바로 結局 汪氏의 外交方針을 踏襲할것이오 또 踏襲치아니치못할것이라고 上海日本側有力者는 觀測하고잇다

【靑島十二日發聯合】中央黨部秘書長 葉楚傖氏는 十一日 汪精衛氏를 訪問하야 極力慰留에 努力하얏는데 汪精衛氏와의 會見內容에 對하야 말하되 汪精衛氏에 對하야 中央의 意見을 詳細傳達하고 極力 慰留를 要請하얏다 汪精衛氏의 態度는 極히 强硬하엿스며 近日 一切 中央의 希望대로 解決될것으로 생각된다

葉氏慰留에不拘코 汪精衛氏態度强硬

辭表는十三日行政院例會에提出코 各部長의進退도決定

【電通上海十一日發】汪精衛氏의 辭表는 十三日 行政院例會에 提出되며 行政院各部長이 汪氏와 그 進退를 함께할는지 안할는지를 決定할터이다 汪氏는 結局 慰留結果 國民政府內및 蔣介石氏로부터 自己政策支持의어느程度의 言質을 어든後 留任할듯하다

葉氏十三日歸京 汪氏慰留顚末報告

【電通上海十一日發】汪精衛氏를 慰留키爲하야 中央代表로 靑島에 赴하엿든 葉楚傖氏는 十三日 南京에 歸任하야 中央要人會議에 慰留顚末를 報告하기로 되엿슴으로 汪氏의 留任與否는 同日에 大略明白하게될모양이다

暹羅內相倫敦向發

【盤谷十一日發聯合】暹羅內相루앙브라데이트氏는 十一日盤谷을 出發하야 倫敦에 向하엿는데 氏가出發하기前에 盤谷에 騷動이 勃發하엿다는 報道가 傳하엿스나 右는事實無根으로 市內는 자못 平穩하엿다

有力한共產軍一千餘 武穴對岸에出現

日本砲艦小鷹,現地에急行 公安局側의形勢不利

【漢口十一日發聯合】江西省西部에 出沒하고잇는 共產軍約一千名은 九日 湖北方面에 集結하고잇는바 十日午後三時 그一部 約五百名이 武穴對岸에 進出하야 揚子江의 渡河를 企圖하야 市內를 掠奪하려다가 十一日午前 마침내 公安局과 衝突을 交하게되엿다 武穴에는三井洋行 岩井洋行 其他 六戶의 日本商社와 十人의 日本人이在留하고잇는데 共產軍의 勢力은 相當히 强하야 公安局側은 苦戰하는 現狀으로 形勢는 자못 不利하야 日本居留民은 不得已 殘留者三名을 남기고 他는 九江으로 避難하엿다 第十一戰隊는 九江으로부터 同地를 警備中인 砲艦小鷹을 同地에 急派케하엿다

赤字公債는最高七億圓

陸海軍의國防費膨脹形勢를 大藏省,極力抑制乎

【東京電話聯合】大藏省에서는來二十日頃 事務當局首腦部가 高橋藏相을 中心으로 葉山會議를 開催하고 明年度豫算의 具體的編成方針을 決定하고 마침내 九月初旬부터 尨大한 豫算査定을 開始하기로 되엿는데 얼마前明年度豫算은 依然 國防費의 膨脹을 不得已하게될 傾向이 잇다 陸海軍이 財源에 對하야 相當히 策動을 固執하야 此를 방패로 國防費의 膨脹을 强要할것이 [illegible] 大藏當局은 財源에關하야 調査에 基하야 公債漸減方針을 中心으로한 健全財政의 [illegible] 어디까지 [illegible] 豫算의 膨脹을 制限할 [illegible] 이다 即 十一年度歲入은 十年度歲入實績을 大體基準으로 [illegible] 한結果 租稅와 印紙收入에잇서서는 軍需工業과 貿易의 好況으로 六七千萬圓 內外의 增收가 豫想되고 其他 [illegible] 自然增收를 加하야 一億圓 內外의 自然增收가 [illegible] 이 十一 [illegible] 에 끈치고 [illegible] 二十二億圓에 끈치게한다 [illegible] 約七億圓의 赤字公債를 必要하게됨으로 大藏當局으로부터는 金融界또는 一般經濟界의 情勢를 達觀하야 公債 [illegible]

人事·要失
▲大竹十郞(平安北道知事)十二日 [illegible]
▲吳[illegible]

第二次對中政策 外務省大綱作成

積極的協力을持續키爲하야 滿洲國의承認을要求

【電通東京電話】外務省에서는今年初頭以來의 日中好轉의 實情에 鑑하야 日中兩國의 積極的 提携를 圖하기爲하야 第二次對中政策의 樹立을 企圖하고잇섯는데 最近大綱의作成을 終了하엿다 그方針은 第一에 中國으로하야금 日本의協力을 求하지안코면 平和維持及 兩國永遠의 友好關係를 持續하기困難하다는 旨를 自覺케하고 第二로 滿洲事變以後 排日取締와懸案解決을 目的하고 나온消極方針을一擲하고 積極的으로 中國側의 協力을 求할것과 第三에滿洲國과의 接壤地域인關係에서 日滿兩國의 政治經濟에 對하야 北中이 가장緊密한 關係를 갓고잇슴으로 對中政策의 重點을 北中에 두고 漸次 中南中國에 及하게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積極的 協力을 求함에는 結局中國이滿洲國承認을 行하지안는以上 徹底치못한 感이 잇스므로 適當한 時機에 中國의 滿洲國承認을 要求할 方針인데 其實現은 日、滿、中提携의 完成을 促進하야 日本의 地步를 鞏固케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에디오피아』首都에 各國의記者雲集

에政府取締規則發布

【아디스아베바十日發聯合】戰爭氣分이 逐日濃厚化하고잇는 今日 에디오피아首都 아디스아베바는 맛치 各國 新聞記者團의 『메카』로 化하고잇다 外國記者中에는 內地旅行을 希望하는者가만코 또政府는 萬一開戰時의 對策을 鮮明히할 必要가잇서十日左와如히 外國新聞通信記者取締規則을 發表하엿다

一、에디오피아 在留外國新聞記者와 通信員은 에디오피아政府로부터 身分證明書의 交付를바들것

一、身分證明書 所持者는 에디오피아國內의 旅行 寫眞撮影의 自由가有함

一、行動은 正確함을要함

政府는 더욱 開戰時에는 携帶無電機의 使用도 右新聞關係者에附與할 件도 考究中이다

伊空襲에備코저 에國의防衛工事進行

【아디스아베바十一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마츰내 開戰時首都아디스아베바와 外部와의交通이 遮斷될것을 憂慮하고 目下極秘裡에 防衛工事를 進捗하고잇다고傳하는데 이計劃은 아디스아베바東方百五十哩의 지프치鐵道가 하아슈驛을 橫斷하는場所로 同時에 堅固한要塞를 構築하고 砲兵高射砲等을 配置하야 伊太利軍의 空襲에 備하고잇다

第四次農業移民 來春까지移植

拓省對滿移民策

【東京電話聯合】拓務省은兒玉拓相就任以來 移殖民事業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야 一般者 南洋移民에 對하여는 移民會社를 設立하고 크게南洋雄飛의 氣勢를 보이더니 다시 滿洲移民에對하여도 一大移殖民會社를 創設하야 北滿에 發展을 期할目的으로 目下移民拓殖委員會에서 答申案을 審議中인바 初秋九月上旬 委員會案을 決定하기로되엇다 이와 別個로 第四次農業移民에 對하여는 全國各地에서 第一次銓考를 終了하야 有資格者의 決定을 急히하고잇슴으로 九月中에 先發隊 若干名을 滿洲國密山에 附近에 移殖할수잇고 다시來春까지에는 全員五百名의 移殖을 完了할 模樣이다

蔣介石氏가 慰留電報

反汪派要人四川行

【電通南京十二日發】汪精衛氏의 辭意表明에 對하야 蔣介石氏는 十日附로서 懇切한 慰留電報를 發하야 飜意를 促하엿다 中央으로서는 蔡元培、葉楚傖兩氏의 汪精衛氏 會見結果를 기다려第二段의 工作을 講究할터인데或은 近近中央 常務會議에서 慰留決議를 行할 模樣이다 그리하야도 蔣介石氏는 反汪派의 策動에對하야도 深甚注意를 拂하고 考試院長 戴天仇氏의 來州를 求하엿는데 戴氏는 健康上 理由로 辭退하엿슴으로 司法副院長 覃振氏가 四川에 赴하게되는模樣이다 覃振氏는 十二日朝에 入京하는同時에 孔祥熙氏其他 主로 反汪派의 要人과 會見하고 그對策을 考究하고 잇는바그結果를 가지고 一兩日中에 飛行機로 成都에 赴할터이다

八面錄

◇ 全日本工業의心臟部 大阪地方에 朝鮮人經營의工場이 百四十六個所。

◇ 製品도 時代的 尖端的인 金屬과 세루로이드가 大部分이라니 더욱반가운일。

◇ 全朝鮮을 通하야 朝鮮人의資金 朝鮮人의勞力으로 經營하는 工場은 몃곳인고。

◇ 重工業 機械工業따위는 그만두고, 日用品만드는 小工場이라도 우리의손으로 작구작구 세우자。

海軍軍縮本會議 開催機運再燃

佛國의專門家派遣同意로 英佛會談後急速展開

【電通倫敦十日發】今年末 又는 明年初頭에 海軍軍縮本會議를 開催하려하는 英國의 意向은 對佛關係의 停頓으로 거이 放棄되여잇는바 今回 佛國政府가 九月下旬又는 十月初旬 海軍專門家를 倫敦에 派遣하는데 同意하엿슴으로 本會議의 開會希望은 突然再燃되게되엿다 그리고 來英佛海軍會談의 目的은 主로 今後五個年間의 建艦計畫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할터인데 佛國側은 英佛會談에 滿足할만한 結果를 어들 境遇에는 五個國海軍本會議에 參加할 意思가잇다는 言質을 表明하엿다는데 英佛會議後 海軍軍縮本會議에 關한 關係列國間의 外交交涉은 俄然 活氣를 띄게되리라고 觀測된다

英國建艦陣容 成案을確定

無條約狀態에對應

【電通倫敦十一日發】英國海軍省에서는 軍縮會議將來할 無條約狀態를 압두고 獨自의 建艦陣容一新을 企圖하고 잇는바 近近成案을 確定하야 될수잇는대로 빨리議會에 開議에 提出하기로 되엿다 그內容은 이미各方面에서 觀測되고잇다 右計畫의 骨子는 老朽艦全部를 六個年間에 代換하야 그質的向上을 期하는 同時에 따라서 巡洋艦(現在五十隻)을 六十隻으로 增加하려고 하는데 그總經費는 一億五千萬磅 乃至二億磅이라고한다

시아틀事件에 市長遺憾表明

【電通시아틀十日發】시아틀의不祥事件에 對하야 시아틀市長은 十日 左와如히 遺憾의뜻을表하엿다

今回의 事件은 眞로 遺憾되는 問題로 余는 極力 그圓滿解決을 圖할 方針인바 이미 岡本日本領事와도 協議를 遂하고 種種 奔走中이다 關係方面과 妥協을 遂한後에 岡本領事에게 來十二日朝 正式으로 講論을 發하야 遺憾의뜻을 表明하야 圓滿히事件을 解決하려고한다

따늄條約起草說 佛國政府否定

交涉만進行中이라고

【巴里十日發聯合】伊、에紛爭을 한便에 노코 他方 伊太利政府는 따늄條約案의 起草를 終了하야 近近關係各國政府에 送附하기로되엿다고傳하는데 佛國官邊은 右報道를否定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따늄不干涉條約에 關하야各國政府間에 交涉이 進捗中이며 傳하는條約案과 如한具體的提案의 成立까지는 到達되지못하엿다

伊에紛爭畵報 ▲ 戰禍가 成熟됨에따라서 伊太利軍이 느기는 큰困難은 東阿의炎熱과 風土의 不適이다。그러나、이地方에서나은 에디오피아軍은 그武器가 貧弱함에反하야 意氣가 더욱高揚되고잇는것을 發見할수잇스니 寫眞上은 小銃을 억개에매고 生意와가티 意氣衝天한 에디오피아의 義勇軍。寫眞下는 遠征隊에 加入하신 [illegible] 伊太利皇太子殿下(寫眞의左)

○鑛業家의 渴望하던 新改正版이 出來○
○勿論! 出版當日에 一千部가 賣盡○

最新改正 現行 朝鮮鑛業令 附、一般鑛山發見法

美本全一冊 定價金一圓五十錢 書留送料十四錢 (要先金)

本書는昭和十年度新改正된 鑛業令과 銃砲火藥取締令을 비롯하야 鑛山에 圖面과 燃料分析、試驗及鑑定法、鑛業登錄規則、假登錄及登錄稅令、登錄書式各種과 鑛業地質技術官派遣規則土地收用令、低品位金鑛獎勵金交付規則、金探鑛獎勵金交付規則、石採取規則 各種鑛山發見法、各鑛石鑑定法、及鑛床鑑別鑑定法、金製煉法各種其他鑛業에對한 諸般手續을 一毫도錯誤가업시 刊行한것이니 一攫千金場에 鑛業家諸氏의 一大寶鑑이다 品切後의 歎이업시即時購讀하시오!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二〇 振替京城三九〇一 德興書林

胃腸 わかもと 에

諸病除去 本劑는 胃腸의 自然 作用을 促進하야 全身에 營養을 助하는 本邦唯一의 純正 胃腸藥 三日分一圓六十錢

八月十二日より五日間 浪花納涼名畫祭り 大衆料金三十錢均一
十二、十三、十四日
一、獨ヴァンドール超特作日本版 監督 クルト、ベルンハルト 主演 パウル、ハルトマン
●トンネル
二、佛ヴァンダル超特作日本版 監督 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 主演 アルベール、プレジャン
●商船テナシチ
十五、十六日
一、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監督 ヴィクター、シャアチンガー 主演 グレス、ムア
▲戀の一夜
二、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監督 フランク、ボザギー 主演 チョーヂ、ブレクスン
▲ますらを
突如次週獨占大封切

洋畫專門 浪花館

自轉車材料 原價奉仕 信用問屋
製造元より直接皆樣へ
特典(付) 商報 原價 進呈

最高級新案日英保險付 實用優美染替耐用 仕上吟味堅牢中古車 出物太リヤカー 地方帝都 諸官廳 納品 名實隨一のエスニム號製造發賣元
四圓 七圓 五圓 十二圓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の六大通 直賣元祖 自轉車製作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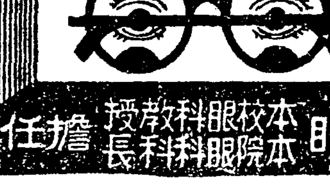
セブラスン醫專病院
檢眼無料 限眼鏡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長 擔任 檢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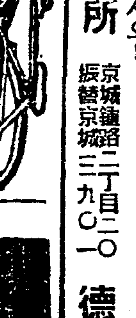
말더듬이
一、矯正案內書無料送呈(郵券十錢) 一 (?)
訥言矯正院
京城府梨花洞二〇四ノ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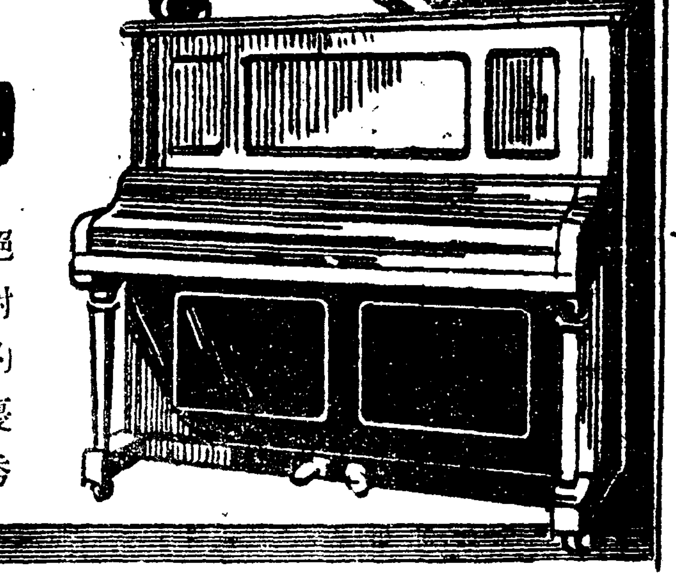
恩給 長期據置을 他에比較할事가 無한 最有利한 特典을 附함 信用第一 鄭商會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山葉ピアノ
家庭用 五〇〇圓부터 (カタログ進呈)
絶對的優秀品으로써 諸大家가 모다推薦하는 本器를求하시야만 피아노의 音樂의 妙締를 어들수잇습니다。
全鮮各地特約店에잇슴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丁目 (電本三四八五)

ローズ仁丹
땀도 疲勞도 아조解消되야서 여름도爽凉한健康으로! 집에서나 客地서나 仁丹
全國의 有名藥店에 ローズ仁丹 [illegible]







今朝, 現役中佐가 永田軍務局長狙擊

午前九時陸軍省局長室에서

犯人憲兵隊에收容

【電通東京電話】 륙군성공표=륙군성 군무국장(陸軍省軍務局長) 영전철산(永田鐵山) 소장은 십이일에 군무국장실에서 집무하든중 오전 아홉시 사십분에 모련대(某聯隊)부 중좌(中佐)에게서 단도로 상해를바다 위독에빠젓는데 동중좌는 헌병대에 수용되야 방금 취조중이다 (사진은 군무국장)

京都浸水家屋 七千七百餘戶

昨日正午까지의被害

【電通京都電話】 십일일 오전까지의 판명된경도부하(京都府下)의수해상태는 다음과갓다 ▲堤防欠潰八個所▲橋梁流失三個所▲同破壞一一個所▲死者一〇名▲負傷者三六名▲行方不明二名▲家屋全壞二四戶▲同半壞一一戶▲床上浸水一三七三戶▲床下浸水六三五八戶

【電通京都電話】 그후의조사결과로판명된 피해상황은 길상원중천원(吉祥原中川原)방면 천신천구중교(天神川九重橋)부근의제방이 결궤하기때문에 침수가옥삼백칠십오호에 달하고도 대문동천(大門東川)방면에는 침수오백여호이다 그러고 호우과의 조사에의하면 경지의피해 이백정보나 되다고하며 산과(山科)복견(伏見)의채소류는 전멸을 바더 천번이상의 대손해라고한다

池堤의決潰로 十數名이死傷

家屋이多數倒壞되여

【京都電話聯合】 밤에이르러서더욱쏘다지는호우로 인하야 락동의명소 청수산(清水山)우에잇든치아지(稚兒池)는 열차이나 물이불어서 십일일오전 세시경에는 드듸어 결괴(決潰)되여 그산밋헤잇든부락으로 쏘다저 내려와 경도동산구산과(東山區山科)부화산(北花山) 시전정(市田町)중서정(中西町) 부근일대에 범람하엿든바 이때에전주는 넘어저서 암흑(暗黑)화하야젓스며 민가열두채가 물에밀려 쓰러젓든데동시전정(市田町)에서농업하고잇든시전청삼(市田淸三)(三〇)과중서정공문무언(中西町公文武彦)의 맛딸내자(奈子)(六)와 차녀좌보자(佐保子)(四)는 무참하게압사를당한 이외에도 중경상자를 십여명이나 내엿다한다

雨神은東走 災民도安心

【大阪電話聯合】 구일밤부터 십일일정오까지 태풍권내(颱風圈內)의 호우의맹습을 바더 경도대판, 신호 일대에 참담한수재를 보개한바는 대판남방을 시속오십키로로 동방을향하야 빠저나가기때문에 비는 겨우멋고 오후 네시경에는 볏이약간빗엇다 대판부하삼도군자목고진(三島郡淸木高津)방면의 피난민은 겨우안심되엿다

東海線列車는 電車로連絡

【大阪電話】 동해도선 섭진부전산긔간(東海道線攝津富田山崎)의 불통으로인하야 대판철도국에서는 십일일오후 여덟시반부터 신경판전차(新京阪電車)로 련락을 개시하얏다 이와동시에 대궤성선(大軌省線)경도(京都)방면의 련락은폐지하고 본선개통까지전차련락을 하기로하얏다

新、義自動車開通

【新義州】 신의주와 의주간에는 근래미증유의 대홍수로자동차의 교통이 막켯든바 옹급공사를하야 지난팔일부로는개통이되얏다

義烈團金公信 求刑二年半

判決言渡는十九日

남경(南京)의렬단원 김공신(金公信)(二一)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의공판은 십이일오전열시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당임 주견(酒見)검사립회로 개정되엇다 피고김공신은 본시련천(漣川)출생으로 소화삼년 삼월 련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올라와 시외 모제사공장의 직공으로 다니든중소화칠년구월 시외 행당리(杏堂里) 최재영(崔載榮)집에서 상해 의렬단원 리명환(李銘煥)의 소개로 상해에 가서 의렬단에 가입하야 륙개월 동안김원봉(金元鳳)에게 피스톨사격 폭탄투척등의 교련을 바든후조선으로 도라와서 금년정월까지 다수한 단원을 모집하여 상해로보낸 사실이 잇섯다 그뒤금년오월 상해령사관 경찰의손에 체포되어 경기도 경찰부로 너머왓섯는데 사실심리가 끗난후립회검사로부터 이년륙개월의징역을 구형하엿고 언도는 오는 십구일로 결정되엇다

셋바람난午後 (昨日光化門通서)

新義州水魔防止할 外廓堤坊을築造

五十萬圓國庫補助밧도록 大竹知事總督府交涉

【新義州】 신의주부의 대수해의 복구계획에대한 협의를하고저 총독부에 와잇든대죽(大竹)평북지사는 수일간관계각국과 협의한결과 도로교량의 복구등은 제이예비금의 지출에의하야 공사비를 충당하고이만여정보의 농작물 피해중약구천정보의 전면수확을 하지못할경지에대하야는 백채(白菜) 무매 밀(蕎麥)등의 대작(代作)을 식히게되엇다한다 그런데특히주목하는중요방수공사로는 신의주(新義州)의 주위를 둘러싼 제방의확장계획으로 축현재의 신의주제방외곽에 구체적계획에대한 총공사비는아즉 결정못하엿스나 오십만원정도의 국고보조를 어더가지고 이번에침수한 신의주부외삼천호를 전부새동안에 포함하도록 대제방을 축조할계획에 대하야 내무국과 협의한결과 대체의승인을 어더슴으로 명년도 추가예산에 오십만원의 국고보조에대한 예산을 요구하게까지 되엇다 한다 따라서 이 제방이 완성되면 신의주부의 면적은 현재의 약배로 팽창하는동시에 현재의 제방밧게잇는 인가일만호는 제방안에 들게되야 약간한 수해에는 그리 위협을 밧지안케쯤되리라한다

平壤에自動車『갱』 一夜에兩臺襲擊

强奪한車를運轉逃走中에 今朝, 孟中里서被逮

【平壤支局電話】 평양에 자동차 『깽』이나타나 큰소동을 이르켯다 십일일 오후열한시반경에 평양부『킹』택시로 지금평양역압 길촌(吉村)신문포 압해서 기다리고잇스니 곳자동차 한대를보내라는 주문을 밧고 평남팔호 자동차를 로진과(盧鎭科)(二七)가 운전하야 갓든바 이십오륙세되는 일본의복을 입은 신사풍의 일본내지인이 대동군 서천면인흥리(大同郡西川面仁興里)조선무연탄회사(朝鮮無煙炭會社)의 감북탄항(坎北炭坑)까지 친구를만나려갈터이니 그곳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밧고 전기운전수는 그를 태워가지고 현장까지갓스나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지못하고 다시평양에서 약십리떠러진곳인 인흥리 가축시장으로 가자고 명령하고 그자리에서 운전수에게 단도를내밀면서 운전수의 소지금 이원칠십전을 강탈후 다시우협하야 평남순천가도(順川街道)를 약 십리반떠러진 김숙한 곳으로 운전케하고 그곳에서 운전수를 내려논후유유히 자긔가 운전하야 평양부내로 돌처달어낫다 운전수는할수업서 감부탄항까지 걸어와서 주재소에 전말을 보고하엿슴으로 주재소에서 곳본서에 보고하야 평양 대동량서에서는 시각을 멈추지안코 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수사에 착수한바 전긔 평남팔호차는 평양역 광장(平壤驛廣場)에 내버려둔것을 발견하엿다 그리고 십이일 오전령시반 부내 안전택시의 운전수 김윤걸(金允杰)(二五)의 평남일천일백 삼십삼호에다 손님을 태우고 떠난이후 종무소식 임으로 이상하야 오전세시 그뜻을곳 계출하야 평양서 에서는 동일한범인의 행위라고 추측하고 철야수색한결과 십이일 아츰에이르러 김윤걸은 평남안주군신안주주재소(平南安州郡新安州駐在所)에 동차와 소지금을 강탈당하엿다는 급보를밧고 안주서에서는 범인은 평북으로달어낫다고 추정하고 엄중수배중이든바 청천강을 건너간자동차가 그차인듯하다는 보고를밧고 추격한결과 평북맹중리(孟中里)에서 자동차와그범인을체포하야 목하안주평양서가 협력하야 범인의신원과동일범인가 아닌가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北海道出生 二十歲靑年

【平壤支局電話】 전긔자동차(自動車)도적은 안주서(安州署)에류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동인은 북해도찰황시북오조(北海道札幌市北五條)서이십정목일번지 무직 웅곡도차랑(熊谷道次郎)(二〇)으로 만주로가는 려비를 엇고저범행한것이라하며 동인은 북해도도청에서 하부한 운전수면허장까지휴대하고잇섯다한다

臨時列車運轉 滯留旅客輸送

關釜間連絡船復舊

십일일 조선해협에 폭풍우로 관부련락선이 결항하야 하관에체류한 조선만주방면의 려객일천팔백명은 비상한 혼잡을 이르키엇스므로 철도성에서는 십일일밤에 특별히 덕수환(德壽丸)창경환(昌慶丸)의 두배를 운항하야 열하루날 아츰에 두배가부산에도착 햇스므로 철도국에서는 이들려객을 운수키위하야특급제칠렬차와 제오렬차외에 제일천일백일호 렬차를 운전하야 부산발오전 일곱시 오십분경성착오후네시 삼십륙분으로 려객의 원만수송을 마치고 십이일아츰부터는 상태로 도라갓다

昨日、水泳나가서 돌아안오는兩少年

서빙고방면으로가터니간후 溺死된念慮도不無

찌는 로염(老炎)의 무서운더위를 참다못하야 목욕을갓다가스물네시간이지나도 도라오지아니하는 가여운 두소년이잇서 방금 그해방을 수사중이것이잇다 시내 경운동(慶雲洞) 이십번지 리복이(李福伊)의 삼남 영창(永昌)(一三)소년과 락원동(樂園洞)삼십륙번지 리경희(李景熙)의삼남 중진(重鎭)(一七)소년은 십일일오전열한시반에 서빙고(西氷庫)로 함께목욕나간후 인해도라오지아니하야 집안사람들이 소관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얏다 경찰에서도 오래동안 수사중이나 혹빠저죽지나 아니헛는지 념려되고잇다

鴨江上流서土兵 船舶九隻을襲擊

碧潼警察署管下對岸에서 人質로二名을拉去

【警務局着電】 구일오전팔시에 평북벽동서동하(碧潼署東下)출장소의대안인 관전현석주자촌 협피구(寬甸縣石柱子村夾皮溝)강안에 토비천룡(天龍)일파의 반마순 십여명이 도선박 구척에래습하야 포대(시까이십오원) 이류(八隻)칠점(시까심원)을강탈하여 가지고 도선부방항생(方恒生)(三〇)외두명을 랍거하야 가지고 오지로도망하엿다

慈城對岸에 十數名來襲

【警務局着電】 구일오후세시십오분에 토병십수명이 평북자성구비(慈城堡仇佛)주재소의 대안인 즙안현삼도구사분변(輯安縣三道溝四分卞)을 습격으로 분변소원은 공등전하엿는데 토병은삼도구구(三道溝口)에서 호안공사를 감독하는중인 삼도구의 만주인 리장고(李長高)를 랍거하려하자 마침 대안에건너가잇든 구비주재소원과 삼도구분서원은 이것을 보고 협력하야교전한속 토병단은 랍거한자를총살하고 이도구방면으로향하야 도망을하엿슴으로 삼도구 상단병(商團兵)과 경찰분서원은 곳출동하야 추격중이라한다

朝滿國際鐵橋 昌城에先着

四十萬圓豫算으로 十二年度부터着工

총독부에서는 조만(朝滿)도로회의의 결정에의하야 래명년도부터 압록강에 삼개소의 국제철교를 가설하게되엇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제일착으로 창성(昌城)강구로부터 대안까지 일천칠백메터에 달하는 대철교를 사십오만원의경비로 총독부토목과에서 직영사업으로 가설할터로 명년중에는 이에관한 조사설계를할터이라한다

保險金에탐내여 自家에다放火

【新義州】 지난 륙일오후열시십오분 신의주부 상반정 구정목(常盤町九丁目)중국인 목수 유홍서(劉洪書)의집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 일동삼호를 반소한후 동사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신의주경찰서사법주임이하 형사수명은 현장을조사한결과 전긔중국인부와 직공명사람을인치취조중이든바 보험금팔백원을타기위한 방화의혐의가 농후하야 엄중히 취조한결과 지난 구일에 니르러방화한것을자백하엿다

公普指定運動

北鎭光東學校

【新義州】 평북운산군북진(雲山郡北鎭)사립광동학교(私立光東學校)는 거금 이십팔년전 그곳감리교회(監理敎會)에서 창설한조선인 유일의 보통교육긔관인데 이래긔곳 주민들의 열렬한 후원으로 교운이 해마다 륭창하여가는중 거금삼년전 송긔창(宋基昌)씨가 동교 교장으로 부임한후 교무를 일층 쇄신하는동시에 재정을 정리하야 적립금으로 사만원(전,답,대지 삼만원 사림 기타일만원)을 확립하얏다 학생의 정원은 이백 사십명이나 지원자가 매년 수용 능력의 이삼 배를 초과 하는 형상으로 현재 삼백칠십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전임교원이 여섯명이며 교유재료의 모든설비가 완전하야 공립보통학교보다 손색이 업든터이라한다 교장송긔창씨는 이학교를 정식보통학교로 인정을엇기위하야 교원한명길(韓命吉)씨와가티 지난구일평북도청을 방문하고 운동중인바 동교의 전도는 실로유망하다고한다

窃盜한手風琴하며 市中漫步中被逮

宣敎師집少年窃盜

거리의 음악사는 량상군자(梁上君子)이엇다는 이야기=십일밤 시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 동양선교사회(東洋宣敎師會)의 이엠뿌라씨의 집에서 영문타이프라이터-한채와 기-타-한개와 손풍금한개 시가 칠백여원어치를 도난당한 사실이 잇섯는데 십일일 오후열시경 소관 서대문서원이 시외 아현리(阿峴里)로상에서 손풍금을 가지고 켜는한명의 소년을 붓잡어가지고 본서에 류치 취조한결과 그는 현재 모고등보통학교의 재적생으로 시외아현리(阿峴里) 거주 방영석(方永哲)(一〇)(假名)으로 지난십일밤 전긔 뿌래씨의 저택에 잠입하야 집안사람이 잠들자는 틈에 전긔 물품을절취하여 타이프라이터!와기타는전당을 잡혓고 손풍금만가지고 놀다가 그와가티 체포된 것이라고한다

煙草耕作을陳情

【沃川】 옥천군내 옥천동이량면(沃川、東二面)은 연초경작지에 편입되지 아니하엿슴으로 량면민은 대표자백오십여명의 명의로 연초경작지에 편입하여달라고 진정서를 도와 전매당국에 제출하엿다고한다

救急常備藥 活命水 同和藥房

運動競技

日米水上對抗 大阪의前哨戰

【大阪電話】 日米水上競技大會의 前哨戰인 大阪의對抗戰은 十一日午後一時부터 大阪市立풀에서 擧行하엿는데 米國選手十三名과 日本第二軍卅五名이 出場하야 兩軍主將의 宣誓가잇슨後 三百米메도레-리레競技로 開幕된바(五十米풀·콘되순·氣溫卄八度水溫卄六度半) 이날의 兩軍記錄은다음과갓다

▲三百米메도레-리레=1米國팀(드라이스델·가스레·휴크)三分二一秒(日本國際新記錄) 2日本A팀(淸水·伊藤·志村) 三分二七秒 3日本B팀(角野·伊伯·林)三分三九秒八 ▲四百米自由型=1후라나간(米) 四分五一秒四 2마스오니스(米) 四分五一秒八 3메데이카(米) 四分五五秒八 4鵜藤(日) 四分五七秒二 5寺田(日)6田端(日) ▲百米背泳=1뽀민지(米)一分一〇秒八 2도라이스델(米)一分一一秒八 3제-야(米)一分一二秒八 4河津(日)一分一二秒5兒島(日)6明(日)7山田(日) ▲百米自由型=1휴크(米)五八秒四 2월프五八秒八 3志村 五九秒四 4구로스도스키(米)一分八秒5田口(日) ▲二百米自由型=1린데구렌(米)二分一四秒八 2新間(日)二分一五秒四 3월프(米)二分一五秒六 4마스오니스(米)二分一六秒5田口(日) 6田端(日) ▲八百米自由型=1후라나칸(米)一〇分一一秒四 2메데이카(米)十一分一六秒二 3寺田(日)一〇分一七秒4鵜藤(日)一〇分二八秒八 ▲二百米리레=1米國팀(구로스도스키·린데구렌·월프·휴크)一分四四秒(日本國際新記錄) 2、日本A팀(山口、河津、井上、志村)一分四七秒二 3日本B팀(角野、佐藤、西田、渡邊)一分四九秒四 ▲二百米平泳=1히킨스(米)二分四五秒六 2伊藤(日)二分四六秒 3가스레(米)二分四八秒八 4野田(日)二分五一秒5柳澤(日)6長

甲子園野球 對陣을決定

新商은愛知商과

【大阪電話聯合】 大阪朝日主催의 第二十一回 全國中等學校野球大會는 十三日부터 甲子園球場에서 開始하기로되엇는바 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 大朝講堂에서 各地代表의 對陣을 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하엿다 (一、은午前九時。二、는正午。三、은午後二時半開始)

【第一次試合】
▲第一日 一、靑島中學—甲府中學 二、米子中學—育英商業 三、日新商業—福島師範
▲第二日 一、石川工業—千葉中學 二、北海中學—大分商業 三、飯田商業—吳港中學 抽籤一勝者試合
▲第三日 一、新義州商業—愛知商業 二、海草中學—松山商業 三、嘉義農業—平安中學
▲第四日 一、早稻田實業—佐賀商業 二、桐生中學—秋田商業 三、以下試合은 第一日試合終了後 第一次 勝者中에서 抽籤 그리고入場式은 午前八時

延專蹴球合宿

延禧專門學校蹴球部에서는 秋期씨-슨을압두고 八月十五日부터 三十一日까지 同校에서 合宿練習을 行할터이라한다

軟式野球第一日

新聖坡 2A 大邱 0

大邱府廳(商部)對新聖坡戰은 午後一時五分부터新•坡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二A對零으로 新•坡勝

新•坡 000 000 2A
大邱 000 000 0 　0—2A

◇投捕=新聖坡(松元、中野) 大邱(表、林田)

釜山 3A 貯銀 0

貯蓄銀行(中央)對釜山同胞俱樂部戰은 今日午後一時三十五分부터 貯銀先攻으로 開戰되어 結局三A對零으로 釜山快勝

貯銀 000 000 0
釜山 101 010 A 　3A—0

梨花體育部主催 第二回少年拳球

梨花洞에잇는 梨花體育部主催의 第二回 全朝鮮少年拳球 選手權大會는 來十七日에 擧行할터인바 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한다 ▲身長=五尺以下少年 ▲申請期日=八月十五日午後八時까지 ▲申請場所=梨花洞八番地朝鮮少年軍第七十六虎隊본 ▲參加金은 一圓

國際學生競技 昨日匈牙利서開幕

【부다페스트十一日發聯合】 第六回國際學生競技大會入場式은 十一日午後四時부터부다페스트의 大學『스타디엄』에서 擧行한바 觀衆無慮一萬에 攝政『호르띠』殿下께서는『껨베스』首相을 거나리시고 正面貴賓室에 臨御하시엿는데 參加一千二百人이 各自國旗를 先頭로 入場하야 中央에整列하니 殿下로부터 起立하시사 大會의 開會를 宣言하시고『자넬』委員長이 答辭가 잇섯고 各國選手는 一齊히 退場하엿다가 開會式을 마치엇다

吉岡選手入京

關西, 城津에서 코-치中의 文理大陸上競技部主將 吉岡隆德選手는 今十二日 午前六時五十分京城驛着列車로 再次入京한것을 京城陸上競技會로 鐵道, 遞信兩陸上競技部에서는 同日午後四時부터 龍山鐵道競技場에서 同選手의『코-치』를 밧기로 되엿다한다

運動界人事

▲金正淵君(에-귀클럽主將)은 올림픽映畫와 講演의밤開催關係로 十二日入京 五番地에滯留中

天氣豫報 曇一時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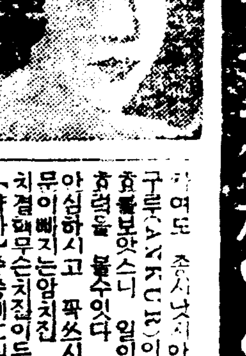
低氣壓은 天津의北方과 四國沖合에잇고 高氣壓은 滿洲의東方에잇다 今日의內地는 曇天不定이요

各地天氣實況

中江鎭 曇	今日 正午	二三度
新義州 曇	昨日 最高	三十一度七分
平壤 曇	昨日 最低	十九度七分
仁川 雨	大邱 晴	
京城 曇	釜山 晴	
全州 雨	下關 曇	
木浦 曇	大阪 曇	
濟州島 曇	東京 曇	
雄基 霧	天津 曇	
城津 晴	新京 雨	
元山 晴	奉天 曇	
江陵 晴	營口 曇	
	大連 晴	
	青島 晴	
	上海 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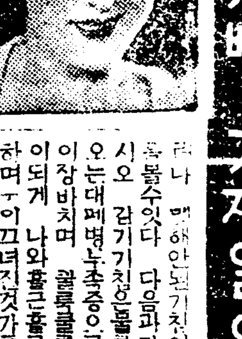
太田胃散 神如效藥 四時常備의胃病靈藥 東京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여付發賣

치질엔 엉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물론 하고 대개치질이잇는데 여러해된 치질로 수술을하여번이나하고 조와한약 상약별별치료를 하여도 종시낫지안든 치질이엉구루(ANKUR)이주입분으로 효력을 볼수잇다 일이년된것이야 무이빠지는약치질 숫치질 치루 치결핵무슨치질이든지 치료됩니다 【약가】중중엔二원·경증엔一원 송료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 二十五錢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기침·담·천식엔 에스씨빼-가제일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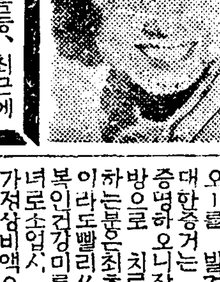


남녀노소여하튼 기침을하는것인데 여러해된천식 해소천촉으로별별약을쓰고별별치료를하여도안낫든데 에스씨빼-를 신발명한엣치빼로 대효를보앗다 【약가】완고용三원 중증용二원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요)

부종증·폐병·륵막염엔 나오빼-가제일이오

폐병은 좋지못한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치료가 불철저하였다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 나오빼-는 신발명의 륵막염 부종증에 특효약입니다

체증과속병엔 겡오-가제일이오



효력이 신속한 새로발견된 위장약 겡오-는 체증·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위궤양·구토·식체·소화불량·복통 등에 특효가 잇슴니다 【약가】완고용三원 중증용二원 경증용一원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마일 무슨 약이던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효과가 업거든약을 곳보내시오 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家庭

「잠」의여러가지 잠안자면죽는다

사람은몇시간이나자면될까?

초저녁잠과새벽잠

수면(睡眠)을 생리학적으로설명한다면 이전에는 잠자는것을뇌빈혈(腦貧血)이 생긴것이라고하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나다른 동물이나 그두개골(頭蓋骨)을 열어본결과 수면은 뇌빈혈에서 오는것이 아니라는것이 판명되엿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잠을잘때에는

신경세포가 모다 오므러지고다른세포와의 연락이 업서지는때문에 잠을 잔다고 하는 말도잇스나 이것도 오늘날의 연구한 결과로서는 그럿치안타는것이 확증되엿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 두뇌의 가죽및헤잇는신경의 연락이 끈처진다고하는말도 잇스나 그것도 실상은그럿치안흔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잇서서는 엇더한 학설이제일 유력하게되엿느냐하면

대뇌의기픈속에

시신경상(視神經床)이란는것이잇서서 이것이 잠의 중추(中樞)가되여잇고 그중추가 본능적으로 주긔적 작용을 이르켜서잡을자게된다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추는 대뇌피질(大腦皮質)의억제를 밧고잇는때문에 대뇌피질의 활동이 둔해지면 잠을자게되는것이라고합니다 그럼으로 뇌ㅅ병으로서 잠을만히잘때、환자를 해부해보면 腦瘍)이나 염증출혈(炎症出血)이 잇는것입니다。 그리고 긔능

시신경상에종양

적질환(機能的疾患) 다시말하면 『히스테리』갓흔 병으로 잠을만히잘때라도 그부분에 긔능적변화가 이러난것입니다。

결국 잠이라는것은 사람의모든 본능과갓치 한개의 개체를보존하려는것 입으로 먹는것은두어주일 아모것도 먹지안허도죽지는 안는것이지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수일간은절대로

자지아니하면 곳 죽는것입니다 그럼으로 흔히 『나는 멧칠째잠한잠못잣다』고하는말을 하는사람이잇스나 이것은 말간 거짓말이고 다만 잣다고하는 자각이업다는것뿐입니다

보통 잠은 취면긔(就眠期)심면긔(深眠期)천면긔(淺眠期)각성긔(覺醒期)의 네가지 계단이잇습니다

그래서 취면긔는 잠이 드러서 삼십분내지 한시간동안이고 다음이

심면긔에드러가

는것으로서 이 심면긔는 한시간째부터 두시간반까지의동안을 말하는것이고 그다음부터 여섯시간까지가 천면긔이고 맨끗헤 자연히 각성긔로 옴마가는것이 보통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상태도사람에따라서 달른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네가 보통 신경쇠약형(型)이라고 하는사람은 누으면서부터 잠이깁히 들지안코 어슴푸레하게 잠을자다가 아침이되여서

기픈잠이드는것

입니다。그래서 이러나면 머리가 무겁거나 아픈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전중은 몸이가볍지를 안타가 오후가되여서 밤이될사록 정신이 맑어지고 밤 열두시로부터 새벽한두시나되는 심경에 무슨일이든지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대개로 잠이란 멧시간자면 되느냐하면 대개로 가축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다르기는하지마는 보통말하자면

갓나은어린에는

약 二十四시강 생후 한살까지 十八시강 두살부터 다섯살까지 十四시강 다섯살부터 열살까지 十二시강 일곱살부터 열네살까지 十시강 열다섯살부터 오십세까지 팔시간 오십세부터 륙십세까지 오시간 내지 륙시간 이후는 삼시간 내지사시간이면 적당하다고합니다。 그래서 꿈도 꾸지안코 깁히 잘드러지는시간이 만흐면 전체의 시간은 좀줄너도 아모상관 업다고 합니다

家庭學藝

월경전에몸이압허

問 금년 이십오세된 녀자이온데 지금부터 칠년전에 결혼하엿습니다。 그런데 한삼년전부터 월경시에는 하엽을압두고 대단히 심한복통과 두통이나고 숙어후리후리해지며 정신을 수습치못할지경에 일으고 며시외가라 음식도먹을수가 업습니다 그때문인지 여지것 임신도 못햇습니다。

월전에 온천에까지 갓다왓습니다 그러나 전파가튼상태에잇서서 매양눈물과 한숨으로지내오니 치료방법을 하교하야주시옵소서 (京義線一讀者)

答 자궁후굴증일것입니다。 온천으로나 약으로는 낫지아니하고 다만 수술을하야만 낫는것입니다。 수술을하면 그러한 증세가업어지는것은 물론이고임신할수도잇스나 수술을권합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鶴俊)

家庭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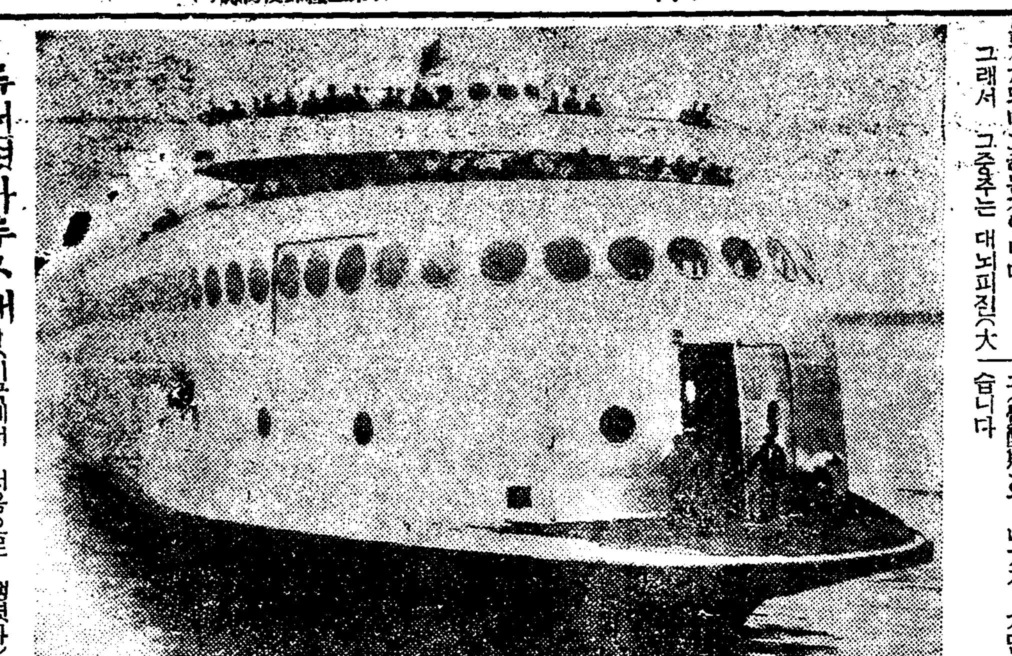
코피의원인과 치료하는방법

◇ー코피나는데는 여러가지원인이잇는데。상기、빈혈、코속의헌데、월경장해、어린애들경우에는 백일기침、그외에 다처서생기기도하지만、원인모를코피도잇습니다。

◇ー웬만한코피에 탈지면으로 코구녕을막고반드시누어잇스면 대개는 곳그칩니다 냉수로머리를차게하고 또 초와물을 가튼분량으로타서 탈지면에 축여코를막어도 조흡니다。 코피가몹시날때는 소백반(燒明礬)을 물에타서 여시탈지면에축여코를막으면 피가끄칩니다 코피가끄치거든될수잇는대로 살며시숨을빼내십시요。 함부로빼면피가또나기쉽습니다 그리고 이상과가치해서도 코피가그치지안흘때는 반드시 누어 어름주머니를 코등에올려노코 가만히잇슴밧게 도리가업습니다。

童謠募集

本社學藝部로



류선형나루ㅅ배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겻다)

라디오프로

十二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金福鎭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產業뉴ー스 朝鮮中央日報編輯次長 裵成龍

◇同八時 農村特別講座(一) 自給肥料에對하야 南基徹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1、前奏曲集에서 아나카푸리의언덕……드붓시作曲

2、前奏曲…라흐마니노프作曲

3、夜想曲……쇼팡 作曲

4、舞蹈會의招待…웨ー버作曲 李光俊

◇同九時 古談 尹白南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沈淸歌中 沈奉士皇城올나는데 趙錦玉 鼓手 丁元燮

十三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四重奏

一、가보트 F長調…베ー토ー벤作曲

二、카바티나…라ー프作曲

三、歌劇「미논」中에서…트ー마作曲

四、序曲 기쁨…켈러벨라ー作曲

京城四重奏團 빠이올린 鄭熙錫 첼로 金泰浩 플류트 李海鳳 피아노 黃熙文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經典解說(一) 崔碧雲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自給肥料에對하야(二) 南基徹

◇同八時三〇分 盂蘭盆會法要 一、中檀禮式 二、上檀禮式 三、和請 四、祝願 出致 諸詞 搖鈴、唄、和請 李能相 梵音、哱囉、金速華 梵唄、和請 上祝 李璟協 打鉦、法鼓 李仁相 胡笛 林元植

◇同九時二〇分 誦書 1、詩調 2、지름 3、前赤壁賦 李文源

◇同九時三五分 音律「靈山會像」 大笒 金永根 朝鮮正樂傳習所員

曆

八月十三日(火) 陰七月癸未(大)十五日 辛酉·木·狩·除

●安葬에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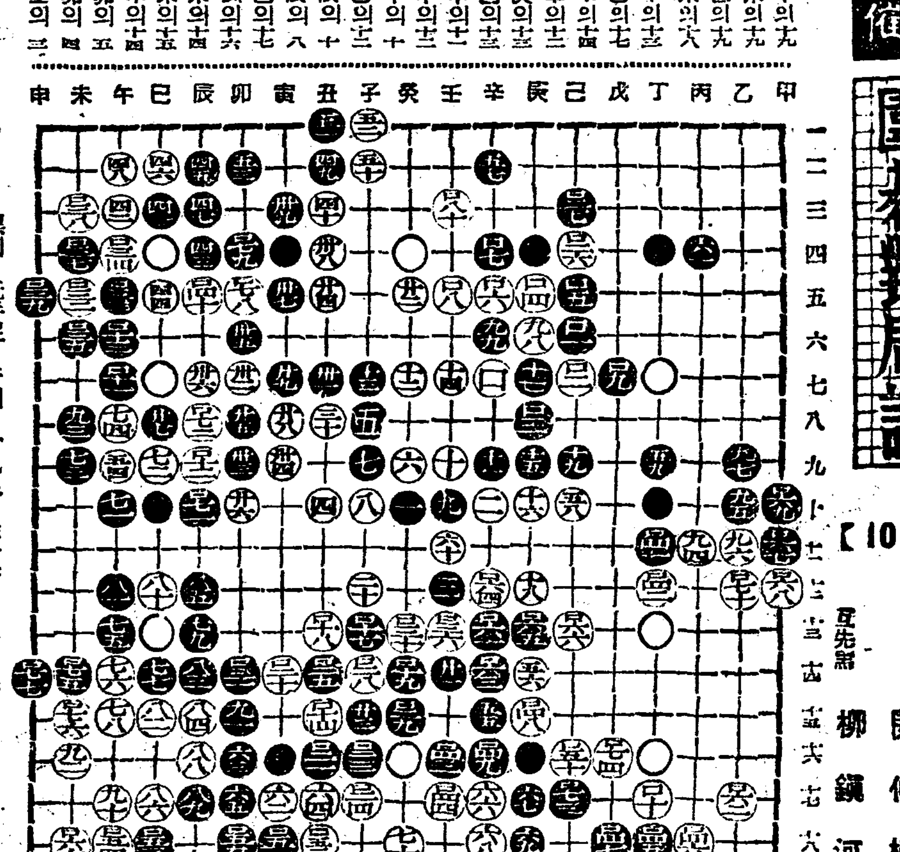
▲立秋八日(陰七月初十日)

▲末伏十二日(陰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陰七月廿六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10】

互先黑 白 閔仲植 柳鎭河



(●一五七)午의九 (○一五八)未의九 (●一五九)巳의九 (○一六〇)未의八 (●一六一)辛의十五 (○一六二)乙의七 (●一六三)辛의十四 (○一六四)辛의十三 (●一六五)庚의十三 (○一六六)己의十三 (●一六七)甲의十一 (○一六八)甲의十三 (●一六九)甲의十 (○一七〇)乙의十三 (●一七一)辰의十 (○一七二)辰의八 (●一七三)己의七 (○一七四)戌의十六 (●一七五)未의十四 (○一七六)未의十五 (●一七七)申의十四 (○一七八)卯의五 (●一七九)卯의四 (○一八〇)壬의三

◇蔡極文氏評 黑이 先手로 午의 十九로 除하야 白을 應케하고 三端을 取한은 可謂卒得이다 이로서 보건대 黑先이 第一이안인가 黑이 辛의 十三으로 除함에 白이 乙의 十七로 着함은 黑의 弱點을 豫防한 거이다 黑은 未의 十四러은 壬의 三取其要著着修措하니 規模綱術에 水若不洩이로다

短篇小說 求婚行 (九)

嚴興燮 作　高一 畵

『미적지근한 국적씨!』느울남기고 나는 R군남매와 거리에서 나왓다음 종호를 다리고 내집으로 왓다。

종호는 상당히 비위가 단기엿숭이지 게딱지를 떼고 대들어 R양도의 나이와 출신학교가튼것을 꼬치꼬치뭇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종호로하여곰 R양을 자긔스스로 사괴도록 R양도한 종호에게대한 인상이 조토록 긔회와 긔분을 만들어주는것이 가장 갓가운 길일것가튼 내주관에서 한계략을 생각하엿스나

그것은 그뒤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저녁때에 구체화(具體化)하게되엿다

나는 미리 R군을 방문하고 종호군의성격과 취미와 학식에 대하야 상당히과대평가해서 첫재R군의 호감과 미련을 조장(助長)햇다

R군은 내말을 어느정도까지 신용 할뿐더러 자긔가직접 종호군의 소박한 태도와성격을목격한마큼

『……나도 사람만은 얌전하게 밧는데……』

하고 똑끈허 가부를 결정하지안는걸보와 좀 적극적으로권고에 힘쓰면 귀가솔깃할것가터 나는다시

『……종호군이 키가적고 얼골은 못낫지만……』

하고 내려한바탕 설교(說敎)하듯 짓거리고난뒤에

『글세…그럼 자네말만 신용하네……』

하는 R군의 긍정사(肯定詞)가 떠러지자 나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끼리 서로의사를 통해보기위하야 어느정도까지 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네!』

하고 거긔대한 량해까지 구한다음 내안해를 특파하야 R양을 다리고 오라한뒤 뒤끗론이론는 종호군과 밀약을 하엿다

나는 내안해를 R군의 집으로 보낸다음 혼자서 큰수박한개와 어룽과 사탕가루를 사다노코 마루를 깨끗이 썰고 닥고 방석을 내여노코 내안해가 R양을 다리고 오기를 기다리엿다。

이윽고 투벅투벅 문밧게서소리가 나드니 들어오는것은 종호군이엿다。

『ㅡ여보게、자넨 너무힘네! 어듸 좀 두어시간 도라단이다시 칠둑떼고 들어오란말야!』

나는 종호의 뒤통바지를 처서내보낸다음 얼마안가서 내안해의뒤를 딸어들어오는 R양을 발견할수잇섯다。

R양은 초록보이루치마에 란사꺼기를입고 저녁해가 넘어갈무렵인데도 검정 조세트에 자주빗 본견안올바친 파라솔을들엇다。

『왜? 옵바는 안와?』하고벌더일어나서 자리를 '빗켜준나는

『실상은 오늘이 내생일이 돼서……』

이러케 입에 침도못치지안코 거짓말을 하고서는 압프로 연출될 연극이 혹은 부자연하게 비트러저 내계획이 폭로당하지나안흘가? 한념려에서

『…옵바가 업서안됏는데……』

하고 능청을떠럿다。

나는 R양을 바람이 시원하게 잘통하는 문압쪽으로 안내한다음 책상을뒤지여 심심할때면 내안해와 소일하는 따이야몬드껨을 꺼내여서 R양과 두판재 시합하고잇스려니까 밧게서 종호군의 발자욱소리가 주춤하더니

『×군!』

하고 안이나 달름가 대문틈으로 종호의 얼골이 뾰조름이빗초인다『…종호군인가? 어서오게』

하고 나는 여전히 안즌대로R양과 껨을계속하고잇는동안 종호는 모자를벗어 마루에노코부채질을 하면서 부억을 드려다보고는 밥짓는 내안해에게 인사를한다。

『아ㅡ니 자네、참 순회강연(巡廻講演)가다드니 언제왓나?』

나는 또한번 거짓말로R양의 종호에대한 주의력(注意力)을자극식히려햇다

내안해는 물무든손을 뿌리며 마루에 올나와선 방석을 내다가 종호에게 준다

종호는 석간(夕刊)을뒤적이며서 갈금 B양과내가하는 따이야껨을 슬몃이넘어다보는눈치다

나는 그판을하고 또한판을 R양의 청으로 하고난뒤에 안해가 가저오는수박쫌을 마시면서

『아이참!!』

하고 갑작이 생각이나는드시 R양과 종호를 회한번 훌터보고는 입을 열엇다

健康美

酷暑의太陽은强하나

雪印의살결은

이런色白!

ウテナ는여름의魅力이다

*

이러케도 明朗한白色

健康的인美麗

大地에가을氣味가돈다

ウテナ化粧의굉장한맛

雪印은어엽분살결을

創造함니다

自然色으로 / 젊어보이고 / 透明해진다

素人化粧에……

面刀한뒤에……

白粉下에……

깨름버슨데……

沐浴한뒤에……

언제나雪印……

三十二錢 六十四錢

ウテナ 雪印 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데나 … 크림

東京本舗 久保政吉商店

文壇時感

文學的生涯와經驗

—文學愛好群의通過路인文壇—

④ 金晉燮

朝鮮에잇서서 文學이 果然 男子一生의 事業에値하느냐, 하는 問題는 暫間이것을度外視하기로 한다。그러나 우리가文學을畢生의業으로삼지안코는 到底히 文學다운文學을 成就할수업다는事實을 否定할사람은 한사람도업슬것이다。假使우리가 文學에對한

豊 富한素質을가지고 專心專力, 一生涯를 文學에 提供한다하드래도 그結果가반드시우리에 남길만한무엇을約束하는것이라고도 말할수업는일이다 問題가이러함에도 不拘하고 그러나 朝鮮에는 아즉도 넉넉지못한 程度의 文學的生涯이나마 가질수잇는 사람이거의 업다는것은 朝鮮文學의 조흔 發達을 爲하야 무엇보담도 이것은 一大支障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된다 朝鮮文壇에잇서서는 兄弟가되는 모든文人은 事實上 얼마나 無常하고 無恒心한길을 일축이거려왓는것이며

將 來에도 또 거러 갈는지 알수가 업다. 여긔 잇서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간의 글을 솜으로 容易하게 文人의 地位를 獲得 할수 잇는것은 두말 할것도 업지만 그러므로 또한이곳에서는 어떤사람이 文學을 말할도 그의自由에 屬하는同時에 이제까지 말하여오든 文學을 抛棄한다도 그의自由에 屬하는 實로 無軌道한事實이 發生하고야말를 우리는 흔이目睹한다。生活은 神聖하다。그리하야 잘되엿든못되엿든 何如間 글을 쓰고잇는 우리앞에生活의 問題가 生理的必然性을가지고 나타날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暫間 붓대를 놋치 안을수업다。여긔우리가 붓대를놋는때는것이 그동안의

文 學的生涯를 意味할수바게업는 두말할것이업다。우리는 如何한方法을가지고 그들로하야금 그들이恒常文學을 가질수잇슴으로 依하야 허되이 分散하는바 文學的精力을 文學을 爲하야 防過하게할수잇슬가를 알지못한다。이리하야 朝鮮文壇은 말하자면 文學愛好群의 一時的通過路에 不過한感이 無하다。이곳에 하로를쉬고간詩人이 잇는가하면 數月을묵은評論家가잇고 그러한사람이잇는가하면 餘情에못이겨 이길을 떠나지못하고 苦生苦生하면서 몃해를 두고 머뭇거리는 小說家가 잇다。한자리에 發展할수잇는데까지의 總力量을 서로 集中식힐機會를 어지못하고 얼마나조흔文學的萌芽가 이

瘦 瘠한 地質속에서 成長의잠된 原理를 스스로 證明치못하고 잇는것이냐! 現文壇이라면 그것은 勿論 現在에 活動하고잇는 文人과 그文學行

動의 總和를 이르는것이겟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가티도 不確實한 概念은 업다。이文人中의大半은 過去의 조고만文學的生活에依하야 보담더욱만히 文人이라 불리지위잇는 사람이오 그外의 文人이라할지라도 어느때 이보람업는 붓을던지고 生活의 他區을 向하야 離去함을 넘지 알을수업는 人士의團體에 依하야 朝鮮文壇은 現存하고잇슴으로서다。그러나 우리는 더러 이無方便한 文壇에 處하되 文壇의 浮沈과거의 運命을 가티하면서 이를겨우 繼續하여가는 者로서 우리가幾人의 作家를들수잇슴을 多幸히 여이지 안으면 아니된다

實 로우리는 그들이 담다 生活을 求하지아니하면 아니됨에도 不拘하고 餘暇의사이사이에 困難하기짝이업는 文學的生涯를 꾸준한努力을 가지고 지여가며잇는것에 恒常적지안흔 敬意를 表하는바이어니와

그들의 野心과 情熱이 크면클수록 그들의 才能의 豫想을 하야 文壇價値가 얼마나 不利한가를 생각할때 우리는 참으로 悄然한 心境을禁할수업스나 여긔서는 文學生活을 社會人士는 쳐, 무어라생각할지라는것이 到底히 엇을수 업고 오즉 現在의 조고만文學環境이 斷片的으로 成立할수잇슴으로써 依하야 朝鮮文學은 名聲上으로 行되어가는 許多한事實에 着目하여주는 讀者를 사람이갓는다면 文壇의 慢性的沈滯에 對한理由를 容易하게

理 解할수 잇슬것이다。나의 所說이 미 所說하나마 餘命여과 나에겨 나의조고만『文學的經驗』을 말하게한다면 나는어느법이고하니 文學을사랑한다할수잇는데에 關할것이다。그러나 나의愛情은 다른만흔사람의 愛情이 亦是그러할것과가티 文學을 생각할수잇기보담은 文學을엇고잇는時間이 比할수업시길다。나의文學에 對한關係는 흔이編者의 注文에依하야 發生하는것이다。그것이 果然文學이라고自目에 値할者인가, 値치못할者인가를 疑心할만한 一二枚의雜文을 일즉이몃번인가, 나는그들의 要求하는대로 써주엇을뿐이오 내自身이 하고저하는 文學에對하야 생각할

餘 裕를 나는 이제도오히려 多幸히 (써볼자되지안을터이니까)갓지못하고잇다。더러小說도 써보고십다, 더러詩論도 써보고십다、생각은하지만 結局그것은 料量업는생각일뿐이오 원終日俗事에 시달니고나면 間或付託마튼雜文을 밤時間을利用하야 普通程度의似而非文學을하는것이 나의사랑할文學의 全部가되다。이것은 내가一의雜文家에 不過하자지만 만권적건 이러한職務은 어느程度까지 文壇全體에 直한 모든사람의 文學的經驗이 아닐까, 하고 나는생각한다。

趣味 가 되여 잇는 것이나가리 놋겨 지는것도 이까닭이라하겟다。

新刊紹介

▲新人間 八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二八番 定價十錢

▲新家庭 八月號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家庭社發行 振替京城一二三〇〇番 定價二十錢

▲八月分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黑風 【180】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정탐(偵探) 10

「나는 순옥씨를 벌을때에 나의 정열(情熱)은 나의 우주(宇宙)를 태울마치 뜨거웟습니다 그런대 순옥씨는 너무도 냉정하얏습니다 그리하야 순옥씨의 고결한 정조(情操)에서 이러나는 찬기운이 나의 정열의 불길을 강화시켜서 나의몸은 타기를 면하얏습니다 그러나 순옥씨가 가신뒤에는 나의 정열의불은 아모 거칠것 업시 타고잇습니다 그리하야 나의 모든것이 재가 되는것은 시간문제(時間問題)뿐입니다 순옥씨가 가신뒤로 순옥씨가 나의 마음에서 일초동안이라도 떠나본일은 업습니다 만일 나로서 순옥씨를일초동안이라도 이즌때가 잇다면 그시간은 시계의 지침(指針)과 아모관계가 업는 시간일것입니다 나의 가슴은 폭발되라는 화산(火山)처럼 것흐로 보기에는 별로 이상이 업는듯 하지마는 속으로는 모든것을 녹이고 잇습니다 나는 이세상에 하야젓습니다 순옥씨를 사랑하는 외에서 다른일은 가마귀의 횟날만치도 업습니다 그밖에 다른일이 잇다면 그것은 죽는일뿐이것이오 나는 이따금 순옥씨를 불너봅니다 부를때에는 『순옥씨』라고 부르지 안코 『천사(天使)』라고 부릅니다 나에게는 순옥씨가 유일한 구주(救主)입니다 천사여! 구주여! 나의생명은 완전히 순옥씨의 소유(所有)가 되얏습니다 천사여! 당신의 어엽분 얼골은 이세상의 모든 남자를 정복하는 무기(武器)가 되얏습니다 그러나 나의손을 막는 방대는 되지말고 나의가슴을 둘코 드러가는 탄환이 되야주시오 용서하서요 일간에 뵈오러 가겟습니다 답장하야 주서요 서서 기다림니다」

편지를 다본 성원은 편지를 펼친대로 책상우에 노으면서 「참 굉장하다 그런데 순옥씨는 뭐 그러케 열렬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하셧소」하고 순옥의 얼골을 나려다본다 순옥은 별떡 이러나서 두손으로 조곰 허러진 머리털을 쓰다듬으며 흥분된 어조로 「그러면 냉정하게 하지안코 열정으로 왕한의 품에 안겻더라면 조흘번 하얏소 누구를 기생인줄 아는 게로구만…… 그나저나 그따위 편지가 어듸잇단 말이오 한두번 본 사람에게 저런편지를 하니 그자가 나를 창녀처럼 안모양이 아니오 분하다나니보다 더럽소 그놈의 편지를 이리주시오 불에다 살너바리게」하고 책상우에 잇는 편지를 집어들고 성냥불을 거서사르랴 한다 「그대로 두시오 그대로 두면 그렁풀도 되고 징거물도 될 터이니 웨 구태여 태우라고 하우」 하는 성원은 입김으로 부러서 성냥불을 끈다 순옥은 잠간동안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까지것을 두어서 무엇을하우 그녀룸이 무슨 그녀룸이오 또 증거물은 무슨 증거물이오 그것을 가지고 송사를 하겟소 엇지겟소 나는그 따위것은 잠시라도 보기시른 사람이야요 남이 애를써서 켜것을 웨 꺼요 나는 몰라요 어서 켜 주서요」 하고 몸을 흔들며 성원을조른다 「연애라는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 이로군 명령을 복종하기 에 사람이 견대는수가 잇다 왕한이가 연애하기가 이러케 어려운줄을 아랏스면 결단코 순옥씨에게 이러한 편지를 아니하얏스렷다」 하는 성원은 성냥을 거어서 불을켜라 한다 순옥은 얼골빗이 변하고 입살이 빨조하야지더니 갑자기 달녀드러서 성원의 손에서 켜라든 성냥을 채뜨려 빼앗고 몸을 바짝 도려안는다

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主催이고 本社學藝部後援인夏期音樂講習會一同은 講師諸氏의 引率下에 지난九日正午에 本社를參觀하엿다 (寫眞은講習會員一同 本社屋上에서)

蘇聯에서열리는 萬國生理學會議

學術紹介키爲한各地展覽會

第十五回萬國生理學會議는 맛침내 八月九日부터레-닌·그라-드는 市에서 開催하게 되엿는데 同會議에 出席하기위해서 蘇聯에 入國한 各國生理學者는 벌서 三百名을 突破하엿다。當會議는 最近의 蘇聯學術界에잇서서 最大行事임으로 이機會에 蘇聯學術界를 世界에 宣傳하려고 蘇聯當局은 各教育機關、學術團體에指令해서 學術展覽會와 其他의 展覽會를 開催식히고잇는데 그數는『모스크바』『레-닌그라-드』『하리코프』等의 主要都市만으로도 十數個所에 達한다고한다 그리고 當會議는 모스크바에 잇서서도 繼續해서 열닐것이나 終了後는 各國參加者를 蘇聯國內에 案內하기위해서 蘇聯學者를 總動員식혀서 이接待에 當하도록하엿다고한다

海外虎信 西洋將棋의 世界記錄

【모스크바發聯合通信】近者『모스코바』의『文化休息公園』에서 西洋將棋(체-스)競技會가 行해젓는데 九時間과五分으로서 百五十五『께임』을行한『리리엔탈』이라는 匈牙利의棋士가 回數及時間에잇서서 世界記錄을樹立하엿다고한다『리리엔탈』氏는 百五十五『께임』의中 勝數九十七『께임』負數는七『께임』無勝負廿六『께임』이라고한다

歸鄕文人

民謠와女人 (中)

—黃海道巡歷記—

城大 具滋均

왜그렁타령

보질쌈을는줄 번연히알면서
무슨잘씨슴나 왜못구가나요
왜그렁왜그렁왜그렁하나요
생사람가지고왜그렁하나요。
저녁을먹고 썩나서니
겨무든손으로 날오라누나
왜그렁왜그렁왜그렁하나요
생사람가지고、왜그렁하나요

龍潭키나려

조개는잡아서 젓저리고
가는님잡아서 정드리자
절게나업스면 토장먹지
조개젓이는 웬왜르냐。

이얼마나 우리들智識人으로서 볼때 아름다운 그들의 的精神을 描出하는것이냐。우리人間은 異性이란것이 最大關心事의하나라는것을 속일수는업는것이다。

農村 아 낭룸이잇는것이다。이外에 長淵갑내기 殷栗조산드리 백갑사타령 鳳山난봉가、月波樓난봉가 메나리타령 난니가타령 黃海道도라지타령 海州배떠내기등等 조흔民謠도 만흐나 黃海道사람은 本來마음이비고 조그마한 名譽와 조그마한 失敗에 끌머리를날치안코 作業에 따라서 날봉이만

紙上瀑布展 (其二)

金剛山의絕勝、九龍瀑

湖岩

瀑布의나라 金剛山에서도 九龍瀑은 가장 그의代表的이다。金剛山은 돌이요 물이라 돌과물이 오묘한技巧와 造化를 다부린는곳이 溪谷美가되고 淵潭美가되고 瀑布美가된다。

金剛山이란 自然美의大寶庫를 일흔것인데 이大寶庫속에서 어느部分을 떼내여 보든지 모다奇妙絕特하지만는 溪谷美로는 內金剛의萬瀑洞을 첫재로 치고 瀑布美로는 外金剛의 九龍瀑을 첫재로 꼽는다 玉流洞으로부터 九龍淵으로 이르는 神秘한仙境에는 日本人의 어느美術家로 하여금 天下絕勝이라고 歎賞을 마지못하게 하야

쪽을풀은듯한 洗珠潭이며 幽谷潭燕한 變態瀑과 飛鳳瀑에 珠簾을 드린것 가튼 變幻無窮한 水簾瀑等은 말하지말자 이들의 瀑潭은 最後에잇는 九龍瀑이란 大絕勝하나를 맨들기爲하야 天工이

準備的으로 施設 한데 지내지못한다 누구든지 한번 九龍瀑에 가본이는 이러한感想을 가지게되리라 九龍瀑의 압흘모의 排置는대강 이러하거니와 九龍瀑의 瀑源은어떠한가 一萬二千峰中에 가장노픈 毘盧峰에서 나오는물과 九井峰에서 나오는물이 合流하야 金剛의 자랑인 外八潭을 맨드러노코 맨내종에 一百八十尺(五十米)의 懸崖로 떠러저 大瀑이 되니 이것이 곳 九龍瀑이다 瀑布가 내려찟는 大瀑潭은 三十餘尺의 화이때워 보기만해도무시무시한 深淵을 일우웟는바거기는

九龍이潛伏 하엿다한다。

좀 仔細히 말하면 이 大瀑의 上流가된 外八潭은 即八個瀑布가 내려찟는곳이 各각이 떠여 深潭이되엇바 거기도 各所에 一龍式 潛伏하여잇슴으로 이를 總稱하야 九龍淵 또는 九龍瀑이라하지마는 오늘날은 흔이 最後大瀑만을 九龍瀑이라고 부른다。傳說에依하면 이九龍이 最初엔楡岾寺大池에 棲息하든것이 西域에서온 五十三佛과 싸우다가敗走하야 九龍淵에 潛伏하엿슴으로 九龍淵、九龍瀑의 이름이생기게 되엿다 이傳說이 荒誕하야 미들수 업스되 어느程度까지 事實을

映像하엿다 면 古代神佛對峙의 一場面을 여기서도 볼수잇다。그러나 神佛鬪爭의 九龍傳說에 對하야 얼마큼 부드럽고도 로맨틱한 八仙女傳說이 잇스니 一日은나무군이 나무를 하려갓다가 八仙女가 八潭에서 한소에 하나씩 모욕을감든데 羽衣를 나무가지에 거럿든것을 보고 나무군이 슬그먼이 羽衣하나를 가저다가 감추고 숩사이에 숨어잇노라니까 仙女들이 모욕을 다하고나서 옷을차저입고 모다 한울로 올라갓는데

羽衣를입고 한울에올라 가는 仙女하나는 갈수 업서 울고 섯슴으로 나무군이 곳 뛰여나가 그仙女를 달내여 다리고 집으로 도라와 살이나개살새 아들딸다 나흐다 이러케 살면서도 羽衣를내보이지 안이 엇다가 이제야 멜아라하고 한번 내보엿드니 仙女가 그것을 보자 곳 빼앗어입고 子女를 한편에 하나씩 끼고 한울로 날아 올라갓다 仙女를일허 버린 나무군은 後悔莫及이라 요새말로하면 失戀이라 할가 몹시 悲歎과 深望中에 헤매다가 畢竟은 한울에 올라가 그仙女를 맛나 또다시 夫婦가되여 살엇다는 傳說이다 이傳說이 거의

世界共通的 으로 金剛山에만 잇는것이 아니로되 가장드려맛는곳은 이九龍瀑외 上八潭이다 自然美에다 이러케傳說美를 裝해가진 九龍瀑은 瀑布로서 뿐이 아니라 說話로서도 언제나 幾多의 少年男女에게 만흔 깃붐을주고 잇다 九龍瀑은 構造에 잇서나 表現에 잇서나 그 美를 到底히 筆舌로는 形容할수업다 그 압헤 가서면 五官이 온통 그 機能을 일허 버리게쯤 된다 瀑布美의極致이다 물과돌의 작란도 이만햇스면 어지간하다 돌과 물의싸움도 이만햇스면 이 지간하다。

人の幸福は何より健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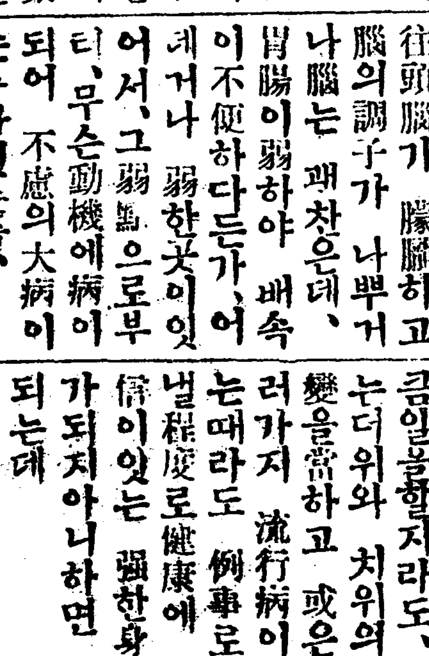
弱한身體로健康에自信이업는분은 于先이것을먹어보라 肉體가緊張하고活氣가난다

長 生할 自信이 업는、弱한身體로、學問을하거나 돈을모흐거나 할지라도、砂上에樓閣을 세우는것과 가튼것이라、무엇을하거나 身體의 健康이基礎인故로、身體貧血虛弱하야 瘦瘠하고根氣업고 疲勞倦怠하기쉬운사람과、元氣體力이衰한 사람은于先身體를 속속히 든든케 하는것이緊要하거니와 健康한

身 사람이라도 體中에 何處에고 比較的 弱한곳이 잇는것으로、身體는살이올맛지마는、앓만해도往往頭腦가 朦朧하고 腦의調子가 나뿌거나腦는 괘찬은데、胃腸이弱하야 배속이不便하다든가、어데거나 弱한곳이잇어서、그弱點으로부터、무슨動機에病이되어 不慮의大病이 는수가잇스즉、

平 素에 養生에 注意하야 當하모리바뿐일을 아야徹夜해가며 腦力根氣를쓸지라도、조곰身體에 無理될만큼일을할지라도、또는더위와 치위의激變을當하고 或은여러가지 流行病이잇는때라도 例事로지널程度로健康에 信이잇는 強한身體가되지아니하면 안되는데

거 기에 는近來 評判조흔 滋養強壯劑 養命酒가 터조흔것은 업다고 만흔實驗者가 異口同音으로 感謝하며德分에 弱하몸이든든해저서 長生할수잇다는 健康의自信을엇어 재미잇게活動하게 되엿스니이런기뿐일이 엽다고참으로好評이오 益益有名하오니、한번만은體驗해보시라。



冷性과弱한胃腸이 든든해저서健康의幸福을嘗知

大阪府 安藤よし子

나는어려서부터胃腸이弱해서換節期라든가장마때에는、가슴이아푸고입속이헤지고食慾이업서서무엇을먹거나맛이업고、억지로먹으면、곳속이누엇누엇하야吐해버리는故로、몸은衰弱하야貧血冷性이되어足腰部가어름짱갓고夜間에잠이잘안옴고昨年十月頃으로부터懷爐가아니면잠을이루지못할만콤몸이冷이하엿슴니다。어떤날新紙上에서 養命酒를알고、사서먹으니혹몸이포근포근더워지고夜間으로는懷爐업시도 例事로잠이푹들게되며次次食慾도나서무엇을먹거나맛잇게먹고、나는 當히든든히살이올랏슴니다。養命酒를昨年가을부터今日까지곡一年餘을愛飮하는데、大端히몸이든든해저서、健康의幸福을알고정말기뻐합니다。(九年十二月廿日受附寫眞은本人)

小冊子進呈 養命酒小瓶一本을 無料로進呈하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郵券를보내시시오

滋養強壯劑로
▼神經衰弱잇는분
▼胃腸衰弱한사람
▼強腦強精의目的
▼不眠숭감분사람
▼呼吸器弱한분
▼疲勞倦怠한분
▼貧血冷病잇는분
▼根氣薄弱한분
▼虛弱體質가진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恢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솜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십시오。送料當舖負擔代金引換으로送料、實費밧슴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目하시고사십시오

信州上伊那郡朝日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 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 出張所

윤재 潤製라이온齒磨

가루도날지안코使用키조흐므로女子

들게도歡迎밧는齒磨 시다……

그女子의一生

李光洙全集

定價 一圓二十錢이나 九月末日까지 特價提供
特價壹圓 外書留送料十八錢 注文必先金
總頁數 四百頁
金文字入 豪華裝幀
春園寫眞及筆蹟
美麗紙函에入
이만치아름답게되는裝幀은 朝鮮서는처음임을 자랑합니다

눈물의、最大悲劇의小說
朝鮮日報에連載되야 天下百萬 讀者의눈물을짜내든、애달픈 佳人薄命哀史!
애달픈金鳳의이약이에눈물을흘니 漢江水되고한숨은모아東南風된다

社會人士絕讚의辭

功績이 許多 — 前新幹會長 許憲

春園은 東京留學生時代부터 朋輩間에 뛰여난 才子란 일홈을 드럿고 그뒤 或은 新聞社로 雜誌社로 學校로 도라다니는 사이에 小說과 論文을 내노흘때마다 一世의 注目을 끌어왓스니 그의 才分이 非凡함을 누길수 잇나이다。여긔든 春園이 社會에준 影響도 不無하겟스나 一面으로 그 功勞도 크게 讚揚할 비잇는 줄압니다。

社會에 끼친 足跡 巨大 — 東亞日報社長 宋鎭禹

春園이 朝鮮社會에 끼친 足跡은 莊大합니다。그는 지금부터 二十年前 黎明期의 이땅 文壇과 評論界에 先驅者中 한사람으로 나타나서 만흔 애를 썻습니다。그 勞力은 多數人士가 이저지지 못할것으로 밋습니다。그의 特徵은 文章이 남다르게 流麗하고 燦爛한 點에 잇습니다 더구나 小說에 잇서는 그의 才能은 만흔 靑春士女를 魅합니다。

世界的作家에 比肩 — 金東仁

이제 그의 政治、社會、文化、藝術等 各方面에 二十年동안이란 긴 歲月을 두고 써오든 散佚된 收穫을 全部 거두어 全集을 發行한다하니 깃븐일이다

人道主義와 五道踏破記 — 安在鴻

마음 노코 우리의 대중에게 권할수 잇는 소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ㅣ로서 잇는 것을 들가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춘원의 소설은 훈(無言訓)이 숨어 있고、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염녀가 절무하다。이점으로 보자면 인류문학사상에 아직 춘원과 어깨를 비길자가 몃이나 될가。

나는 五道踏破記를 가장 感銘이 깁게

○偉大한文豪……玄相允
○永生不滅의功績……尹白南
○春園의再認識……鄭寅燮
○文壇의盛事……俞億兼
○青年大衆의精神的糧食……金祀濟
○語文運動의先驅……李泰俊
○絕讚할紀行文……金炳魯
○大春園의全貌……張赫宙
○朝鮮文化의盛事……金尙鎔
○數萬頁의巨大한量……朱耀翰
○落花岩의作曲……金永煥
○오직讚歎이잇슬뿐……朴花城
○新文學의母……朴八陽
○春園의詩歌……金岸曙
○描寫의卓越三嘆……韓龍雲
○내가본春園……田榮澤
○文彩流麗……金用茂
○新文學의先驅……梁白華

읽엇습니다 그후 金剛山紀行을 發表 아만흔 글을 發表하엿스나 나는 不幸히 이事件으로 社會生活을 하지 못하엿습니다 그리고 적이 잇서서 읽지 못하엿습니다 論文으로도 新聞社說갓흔것을 보면 人道主義的 色彩를 여고 잇는것은 興味잇습니다。

春園과朝鮮文學 — 玄鎭健

朝鮮의 現代文學은 春園에서 始作하여 春園으로 扶持해 온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小說이 무엇인지 文字부터 理解하지 못하든 아득한 녯날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안코 꾸준하게 줄기차게 作品을 내여노은것 만해도 그 功績은 偉大하다。더구나 연연하고 흐르는듯한 文章、堅實하고도 能爛한 手法、紙背에 숨실거리는 熱熱한 民族愛、人道愛는 언제든지 우리 民衆의 高米이며、아울러 우리 文壇의 指導者的 地位를 잇지 않으리라。

文化進步와出版 — 朝鮮中央日報社長 呂運亨

한 나라 한 民族의 文化가 興旺하랴면 그 社會에 큰 人材가 만어야하고 따라서 出版文化가 크게 進步되여 조흔 冊을 널니 펼치게함에 잇는데 이제 貴社에서 全集을 發行한다하니 이러한 點으로 대단히 깃버합니다

春園의大를알려거든 — 廉想涉

春園의 作物에 接할제 어느덧 그의 靈魂의 眞正한 소리를 들을 것이요 그의 魂의 眞正한 소리와 그의 生命의 굽다란 線에 부듸칠때 남이 뚱기어 주지안트라도 저절로 그의 偉大를 깨다를것을 집히 밋는 바이다 나는 春園을 써 빗드는 者의 懇曲한 말로 이말을 讀者에게 보내는 바이다。

李光洙全集內容 (第一期出版發表 主로未刊行物集)

- 第一卷 政治論文集『民族的經綸』 (主要內容) 論文民族的經綸、民族改造論、新聞社說一事一言、相愛의世界에 尹致昊、李商在等人物評論等
- 第二卷『文學評論集』 (主要內容) 中庸과徹底、文學講話、人生과藝術、푸로文學과뿔文學、文學을배우려는이에게、朝鮮文學의定義、文藝瑣談、民謠小考
- 第三卷 長篇小說『그女子의一生』 朝鮮日報連載中의 處女篇 戀愛篇
- 第四卷 長篇小說『그女子의一生』 朝鮮日報連載中의 結婚篇 悔恨篇 放浪篇
- 第五卷 短篇小說集 短篇小說 어린아츰、嘉實、『어떤旦君에게』서온便紙 이밧게新作數篇
- 第六卷 長篇小說 千眼記 東亞日報에連載하엿든 長篇千眼記와 또 中篇革命家의안해『검둥의설움』
- 第七卷 戲曲集 新作戲曲三篇(未發表分)『殉敎者』『봄스토리』 原作『어둥의힘』 쎅스피어原作『씨사』
- 第八卷 詩集 新作、詩、時調百餘篇及위ㅡ드、윗스譯詩 其他譯詩集
- 第九卷 紀行文集『내半島江山』 五道踏破記、金剛山遊記、多島海紀行、南遊雜感、上海에서滿洲遊記
- 第十卷 自叙傳 새로 自叙傳을執筆하는外에『人生의香氣』『東京留學生時代의日記』『眞餘集』『日記』『隨筆』等等

編輯委員

洪命憙…金東仁 韓龍雲…玄憑虛 廉想涉…張赫宙 田秋湖…金石松 李泰俊…朱耀翰 金岸曙…金東煥

同業者엔割引規程送
一冊特價一圓 外送料十八錢
十冊1時拂9圓50錢送

規約

▲會期…全十卷、隨時發行
▲體裁…各卷四六版約三百頁乃至四百頁用紙上 裝幀極美
▲拂込方法…本社振替口座에拂込하시압
▲入金…不要합니다

京城鍾路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 電話光化門一三四九

朝鮮名作選集

二十年來最大名作六十篇收載 (八月二十日發賣)
定價一圓 送料十八錢 洋裝三百頁 美裝函入
注文은絕對先金 同業者엔割引規程進呈
오래江湖讀書子가渴望하든名著이제야나왓습니다

詩歌·二十六作家

봄달잡이…朱耀翰 가신님…鄭寅普 故鄕의노래…金岸曙 金잔듸…金素月 가고파…李殷相 海曲三章…梁柱東 放浪의北京…吳想殉 밤車…朴八陽 봄비…曹雲 會館압해서…金八峯 高句麗城址…金石松 갈메기…鄭芝鎔 나의寢室로…李相和
静監…朴月灘 란식…金明淳 당신의편지…韓龍雲 봄잔듸밧…趙明熙 論介…卞樹州 祈願…盧春城 새들이우리붙으오…金起林 안해의所願…毛允淑 물레방아…異河潤 石窟庵…李秉岐 나는王이로소이다…洪露雀 옵바와火爐…林和 松花江뱃노래…파인

小說戲曲·二十四作家

鬼의聲…李人植 가실…李光洙 林巨正…洪命憙 檢事局待合室…廉想涉 배따락이…金東仁 흙의洗禮…李星海 산양가…朴英熙 B舍監과러부레타…玄憑虛 봉…羅稻香 寫眞…田榮澤 故鄕…崔曙海 脫記…李箕永 山家…李無影 十閒…金雲汀 大傳…尹白南 僧曲…崔獨鵑 金投…兪鎭午 洪後…朴花城 새矣…張赫宙 옷코…李泰俊 豚…李孝石 어살…張德祚 老자…方仁根 傷痕…韓仁澤

安在鴻著 中國의今日과極東의將來

目次
國際危局의序幕▲日中의對立、日露日米의對峙▲中國의現下途程蔣介石의人物과浙江財閥 中國의共產軍과依然한大亂患西南派와四川問題 蔣汪安協의聯立政權과安內攘外政策列國과對中國政策歐米派排日聯外策과極東政策中國과統一工作中國은어데로가는가歷史여말하라
定價三十二錢 注文은必先金

金環載著 一九三五年危機와國際情勢

(時下가장緊切한待望의書出來) 一九三五、六年危機란무엇인가
目次
華盛頓會議와軍縮 滿洲事變과國際聯盟 滿洲國의發展 日中經濟提携의眞相 日本의亞細亞몬로ㅣ主義 一九三六年의列國의兵備 第二華府會議의成果如何
(八月二十日發賣) 定價三十二錢 注文은必先金

好評再版

- 平和와自由 安昌浩等六十氏論文集 五版 價一、〇〇 送料十八錢
- 詩歌集 李光洙 朱耀翰 金東煥 合著 三版 價〇、六〇 送料四錢
- 小說、評論集 朴英熙著 再版 價〇、三〇 送料二錢
- 紅焰 崔曙海著 冊版 價〇、三〇 送料二錢

注文은우에든지반드시先金에限함、代引謝絕 (同業者엔利益이만흔割引規程送)
京城鍾路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 電話光一、三四九

三千里

名將과此一戰

此一戰에大勢가決하며한세마다 千古의名將이나와이活躍을하다
乙支文德과薩水戰役……俞光烈
百濟末와金庾信……俞光烈
閑山島大戰과李舜臣……李光洙

酒家寄情 梁槿煥
英雄과豪傑論 朱雲成
西道千里紀行……金性睦

急迫한風雲과나치스政權……金明植

□極東을노리는新嘉坡의森林속砲臺과軍港光景

日本은英米를이길것인가 米國海軍士官……본룬

□蘇聯이본現在의日本政治家와元老級의人物評記

盛夏特輯

定價三十二錢 半年一圓七十錢 一年三圓四十錢 注文은必先金
京城鍾路 三千里社 振替京城二九四九
各地支社募集 請하면內規進呈
初版賣盡再版出來

★近代商業術과人格……申泰和

三千里機密室: 新生ㅅ事件과機關說 朝報支局長大會記 張德秀氏約婚記 憲氏와校友會記 洲國에朝鮮人特校說 大映畫會社出現說 예코ㅣ드會社歌手結婚 與否行記의配當率 各派가지고오는 廷權氏一大쎈명出 돈?又其專門學校 現說其他諸藏 列傳使教授

모스쿠바劇場映畫學校參觀記

拳鬪俱樂部黃乙秀訪問記

「不老長生術」은어던것인가……醫學博士 李榮俊

生死彷徨九個星霜……李洙

아릿다운京城放送局新女性아나운사列傳
太平洋을戀愛때문에건너온米國아가씨

京城帝大學士行方調査

麗人獨宿空房記

童貞女마리아肖像아래선 金마리
孤獨과哀傷을모르고 장자패는 朴仁德
法堂서修道로 靑春보내는 金一葉

清春을노래하는各國大學生
麥酒잡든伯林大學이여……伯林
쏘ㅡ드탄劍橋大學生活……倫敦
街頭美人과米國大學……紐育 康
南京大學과蘇州風景……南京 金

消夏漫談

俏野寬大한男便……申不
金과水性人……愼麟

文藝史上의春園……金東仁

- 隨筆 民藝隨錄……孫晋泰
- 詩 雨村點描……朴月灘
- 詩 낫(午)……林和
- 譯詩 타고아詩篇……岸曙
- 隨筆 凉味滿地記……申琳
- 漢詩 自省……韓準錫
- 傳說 아리랑의슬픈멜로듸는어데서왓는고
- 創作 늑대……張赫宙

相爭事件과無名會復活 提唱……李鍾麟

兩大新聞 相爭眞因調査狀……金東煥

捲土重來를策하는巨星

이제는出馬하자면百萬圓台의準備가잇서야한다는 前朝鮮日報社長申錫雨氏訪問記
積極信仰團을머리에언고요히著述中에잇는 前基督聯合會總務申興雨氏近況

나의交友錄……許憲

死刑밧은被告를살려낸記……辯護士 沈相弼
新京은얼마나景氣조흔가……在新京 溫泉鍾

人氣歌手 藝術·戀愛·生活

美人薄命哀史

音樂의個人教授하는金龍煥氏와一問一答
花發風雨格인佳人李蘭影娘과一問一答
◇世界的女優의戀愛觀 ◇海水浴場과女性誘惑術

金性洙方應謨兩大財閥의此一戰의意義……金環載

★民族全體와何關인고……權東鎭
★攻擊焦點과吾人雜感……申錫雨
★兩新聞과多角相爭……元世勳
★嗚呼三分四裂……兪鎭泰
★世上주는것무엇인가……申興雨
★我觀兩陣營의戰術……丁七星
★公器의私利性를攻擊……李英
★民衆에의公約직히라……黃郁

朝鮮日報對東亞日報 相爭眞相及批判

朝鮮米差別待遇의 農林省意圖失敗

生產費로 基礎삼으려하던 外地米政策蹉跌!

外地米 生產費調查委員會는 旣報와가티 無期延期로되바 朝鮮米生產費는 總督府主張인 二十七圓에對하야 農林省側主張인 十七圓에는 十圓의 差가잇서 今後 이것의 再吟味結果가 如何할지 重大視되는터인데 이問題는 最初 農林省의 所謂 外地米對策의 根本資料가 될것으로서 自治管理法의 施行方針도 이數字如何에 左右될것임은 當初 農林省에서 生產費를 基礎로내세워 外地米를 差別待遇코 日本內地側에 有利케 展開하자던 意圖는 이로써 完全히 失敗에 歸한터이다.

먼저政府米賣渡 新米出廻期買上?

◇……端境期民間米至極窮屈로

近間米統制會開催

去五月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한 政府所有 八年度日本內地米 整理賣却은 二百萬石限度의 處分을 完了하얏는데 端境期의 民間米가 極히 窮屈함으로 今後 政府所有米의 拂下必要가 豫測되다한다。農林當局은 近間 米穀統制委員會를 開하고 米穀事情에 應하야 何等의 手續을 取할것으로 보이는데 米穀統制法施行令 第十四條二項에 依하야 미리 政府米賣渡를하고 新米出廻期에 買入을 行할方法에 依할것으로보이며 少量拂下의 臨時委員會의 諒解를 기대리지안코 行할수잇슴으로 申込에應하야 언제던지 賣渡한다

米移出激減

在米不足을如實反映 但累計는近卅萬石增

總督府調查＝八月上旬의 朝鮮米移出高는 七萬一千九百六十三石으로 前年八月上旬에比하야 二萬七百五十四石의 激減을 示하얏는바 增加一途이던 米移出이 이러케 減해진것은 朝鮮內 在米不足을 如實히 證하는것이나 昨年十一月以降 米移出累計에잇서는 七百九十七萬一千二百九石으로 比前年同期 二十九萬四千百石의 增加이다

粟輸入依然減 累計卄萬石減

總督府調查＝八月上旬의 粟輸入高는 二萬二千八百二十石으로 前年八月上旬보다 二百十八石減이며 昨年十一月以降 粟輸入累計는 九十八萬一千六十七石으로서 比前年同期에 二十萬二千三百三十九石의 激減이엇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八月上旬	三、一九七	二、七七六	七一、九六三	九五、九一四	七五、一六〇	九八、六九〇
十一月以降累計	二三九、七九九	二五六、六六四	七、九七一、二〇九	七、六七七、一九五	八、二一〇、八〇八	七、九三三、八七九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八月上旬	四	八	三七、〇〇八	九、五六二	三七、〇一二	九、五七〇
十一月以降累計	一五	二四一	一五六、七七一	七九、三〇六	一五六、七八六	七九、五四七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八月上旬	二二、八二〇	二三、〇三八	—	—	二二、八二〇	二三、〇三八
十一月以降累計	九八一、〇六七	一、一八二、三九七	二三、〇五一	四四二	一、〇〇四、一一八	一、一八二、八三九

金融概況

七月京城商界

【朝鮮銀行本店調查】

米＝前月下旬의 日本內地米 天候의 關係로 人氣가 緊張되고 各地의 品薄이 不拘함을 見고 數府縣이던 正米는 前月末보다 二十五錢이오 下落을 見하얏다。特히 深動米의 前途은 今後의 鮮米薄熟觀念之進이 압두고 뿐아니라 九月高境期를 압두고 市况이 硬化를 食하야 四日 滿算의 品騰으로 正米는 또 五十五錢 上昇이엇스나 好轉에 依하야 多少 軟調를 ... 上旬은 終하얏스며 中旬에 入하야 今月一日 日本內地殘在米減少說로 ... 十三日、一日現在 殘存米二七、一〇一千石(比前年同期八、四〇九千石減)의 發表로 政府米 貳百萬石中 五十萬石 拂下發表도 不拘코 騰勢人氣로서 十五日에 至하야 一圓二十錢內外의 高價를 示하얏다。朝鮮內에서도 日本內地로부터 拂下米의 逆移入을 喚起하고 朝鮮內政府米拂下量 期待하기에 至하엿다。下旬에入하야 降雨가 繼續되어 氣候不順으로 河江沿岸 出水被害가 不少하얏고 二十四日頃부터 天候가 恢復되어 多少氣崩의 兆가 잇섯스나 正米의 品薄은 拂下米 逆入을 呼하는 狀態일뿐아니라 內地에서는 公定賣渡米價에 依한 拂下出現의 報는 高價買入物에 ... 하야 漸次 反撥步調

粟＝大豆出廻와共히 粟의 需要가 激減되어 特히 滿洲粟은 產地高로 輸入이 업고 天津粟은 品薄으로 殘品需要가 잇서 月末에는 相當한 人氣를 보앗지만 一般取引이 적고 殘高와 狀態를 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三等合格	三圓三三	三圓三〇	三圓三九
滿洲粟	三圓五〇	三圓五〇	三圓五〇
天津粟	九圓六〇	九圓六〇	九圓一〇

大豆＝新穀以來의 低價를 보고 滿洲產地는 投機側의 整理投物一巡에 依하야 漸次 反撥步調에 잇서 在荷가 薄하고 市勢는 上旬에 一息狀態에 되어 天候恢復으로 出回가 促進으로 高價를 示하얏스나 一三圓九〇錢과 二三圓六〇錢이 鈍感하야 月初 低價 二三圓七〇錢 으로 有力筋의 買戾로 再次 旺盛을 보이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京義沿線(古)	三圓一	三圓一	三圓一
同(新)	三圓八〇	三圓八〇	三圓八〇

小麥＝日本內地小麥은 全收穫이 減少하야 農家의 食入이 激增되고 各製粉側의 猛買로 市價 百斤七五錢高이오 期米高로 騰勢로 月末에는 月始보다 二、三十錢 中旬八、九十錢의 急騰을 示하야 活況裡에 越月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龍山	八圓四〇	八圓五〇	八圓九〇
遂長	八圓四〇	八圓五〇	八圓九〇

肥料＝硫安은 國際側의 所持未解理로 混亂狀態에 依한 其後는 輸送不圓滑에 依하야 品切과 品薄等으로 引締되어지고 肥料의 最終消費量 示現하고 下旬은 引緩하야 追肥需要를 終하얏다。豆粕은 全혀 不需要期로 賣買가 업고 市勢는 滿洲原產地作况良好와 銀價에 依하야 暴落

綿絲布、人絹＝農繁期에 入하야 市勢 一般은 不良되고 一般 月初低價를 계기에 至하얏다。

市勢	上旬	中旬	下旬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融＝平穩推移하다。府內組合銀行 月末은 預金總額 一三一、九八五千圓, 貸出總額一三四、一七一千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預金九百七萬一千圓의 減少, 貸出五百三萬五千圓의 減少이엇다。

滿洲로米輸出激增

食糧과酒造米로서

滿洲國에서 朝鮮米移出은 事變前 一千石乃至二千石程度에 不過하얏스나 七年에는 二萬三千石、八年七萬九千石、九年約八萬石、十年同上豫想으로 各激增되는바 右는 日本內地人의 滿洲增加에 作하야 食糧輸出이 그主要部分을 占한것이나 昨年以降更히 酒造米로서의 消化가 激增되얏다한다。이것은 滿洲의 淸酒類輸入은 一石諸掛合計 約百八十圓을 徵收함으로 伏見灘等의 日本內地釀造家의 奉天、新京等에서의 釀造가 激增되고 이原料로서 朝鮮米가 大歡迎을 밧는때문이라한다

北中國棉花 大量生產着手

日中農業提携根幹

【龍通北平十一日發】北中의 中農業提携의 根幹이되는 棉花栽培에 對하야서는 從來日本의 大量供給을 目標로 中國企業家가 實行되리라고 期待되든 의 손으로 大規模의 生產準備工作이 進行中으로 逐年增產의 一途를것고잇는바 河北省定縣을 中心으로하는 定縣棉年產百六十萬斤里로서는 僅僅 國內消費의 一部를 채움에 不過하야 北中으로부터의 大量海外輸出에는아직 數年의 棉種改良과 增產이必要함으로今後日本의 資本과技術的指導下에 本格的大規模의生產에着手하려고 이中心機關으로政務整理委員會와 如한 日中棉花協會와 如한 民間이 中心이되어 日本과의 誘導交涉을 進行하고잇스니 不遠實現할것이며 이結果 「國內消費에서 對日輸出에」의모로에 北中의 棉花大量栽培가 實行되리라고 期待되다

查(會名未定、殖產契事業調查會)의 設置를 金融事業部에 設置할 方針이라한다。右는 金組內는勿論 總督府로부터 財務、殖產、農林의三局도 參加하고 一般民間도 加하야 殖產契의共販、共購、共同事業에對하야 衆智를集하고 採長補短의 策을 樹立코저하는 것이라한다

名古屋商品見本市

愛知縣、名古屋市主催의 商品見本市一行은 十一日入京하야 總督府商工課後援下에 十三、十四의 兩日間 商工獎勵館에서開催키로 決定하고 市內의 主要商店에 案內狀을 發送하얏는데參加出品物은 메리야스、綿服、額緣、器物小供三輪車、蓄音器樂器農具、土工具、劍道具、小型映寫機等으로 모다 同地一流의 商品이 特히 優秀品을 特別價格으로 써비스한다고。

開催하리라는데 參加店은 約五十店이라한다

京城商品見本市

九月十六、七日開催

京城商工聯合會와 部貿商聯盟會主催로 京城公會堂에서 九月十六、十七 二日間 商品見本市를 開催할터인데 過般大連、奉天、哈爾賓의 三個所에서 開催된 見本市에서 朝鮮商品의 賣上高十萬圓을 注目되엇다 二萬二千七百十四圓이 特히

滿洲서歡迎밧은
朝鮮製고무靴
見本市賣上高의十割

殖產契「經營」調查會組織

法令廿日頃公布

殖產契令은 今週中의 閣議에上程하야 八月廿日頃 公布할豫定으로 金組聯合會의事業部設置도 石에對應하야 下旬에新組織을 準備하고 九月부터 活躍第一步에 入할터인데 財務局에서는 殖產契의 圓滑한運用과 事業의活動을 圖키爲하야 殖產契의經營調

豫想과가티 米運賃混亂

五圓—十圓現場割戾

朝鮮米運賃은 八月一日『鮮航同盟會』의 機能停止後 各港 各社가 積荷事務의 結果 極秘裡에五圓乃至十圓程度의 現場戾를 行하기에 至한때문에 僅히十日에 벌서混亂狀態에 陷하얏다한다

正租檢查規則解說 (二)

慶南浦穀物檢查所 尾崎支所長

◇秋의檢查等級

一等 品質及乾燥 一等標準品以上의것。

▲調製 赤米의 混入一合에對하야 四十粒以內로서 石、土稗、不熟米、其他의 夾雜物의 混入百分의三 以內의것。

二等 品質及乾燥 二等標準品以上의것。

▲調製 赤米의 混入一合에對하야 六十粒以內로서 石、土、稗、不熟米、其他의 夾雜物混入 百分의六 以內의것。

三等 品質及乾燥 三等標準品以上의것。

▲調製 赤米의 混入一合에對하야 百粒以內로서 石、土、稗、不熟米其他의 夾雜物混入百分의八 以內의것。其他 異色產 級의 混入하것 被米의混入한것 包裝의 損傷又는 不完全等 當該官吏로서 搬出에 適當치안타고 認하는것은 等外로하고 三角證印을 押捺함。

(五) 檢查를 完了한 穀物에는 包裝表面에 玄米檢查等級과如한 式으로 靑色의 檢查證印을押捺함。又 一般穀物과 如히 包裝에는 票箋은 附하고 그種의品種을 標記하게되엇고 此票箋은 丸ナ穀物協會에서 共同製作하야 實費로 提供하게되얏다。

(六) 附則＝檢查를 受할제의 量及 包裝에 對하야서는 當分間 左의規格으로 許可하게되얏다。

(1) 重量

一、在來俵

(가) 一個에 對하야 九十斤(口俵一斤을 添加할것)

(나) 一個에 對하야 百二十斤(口俵二斤을 添加할것)

(다) 一個에 對하야 百五十斤(口俵三斤을 添加할것)

(라) 一個에 對하야 百八十斤(口俵三斤을 添加할것)

二、藁袋

一個에 對하야 百斤(口俵一斤을 添加할것)

(2) 包裝

一、在來俵

(가) 掛繩은 直徑 四分乃至四分五厘의것을 使用할것。

(나) 縱繩은 兩所(九十斤入 에 있서는 三個所)에施하고 各二繩으로하야 男結로 結할것。

(다) 橫繩은 二個所에 施하고 各二折繩으로 中部의 縱繩에 本掛하고 兩部의 縱繩에 本掛로하야 男結로 結할것。

(라) 四繩은 一個所(九十斤에 잇서서는 이를 要치안흠)에 施하고 二折繩으로 縱繩과 橫繩에 各히 戾掛하고 中央의 縱繩과 함게 男結로 結할것

二、麻袋

(가) 掛繩은 直徑四分乃至四分五厘되는것을 使用할것。

(나) 縱繩은 一個所에 本掛로하고 二折繩으로 橫繩에 引掛하야 그 其繩의 折目에 男結로 結할것。

다、橫繩은 一個所에 施하야 二回로하야 男結로結할것

(三) 檢查手數料

一、在來俵 九十斤의것 一個에 對하야四錢

二、在來俵 百二十斤入의것 一個에 對하야 五錢

三、在來俵 百五十斤入의것 一個에 對하야六錢

四、在來俵 百八十斤入의것 一個에 對하야 七錢

五、麻袋 百斤入의것。一個에 對하야四錢

今回의 正租檢查規則은 大體以上과如하나 檢查指定地等 尙告示치안흔 事項도잇슴으로 或理解에 困難한點은 出張所에問議한後 今秋의檢查에對하야 遺憾업도록 諸般準備에 着手함을切望한다

——(終)——

株式 反落後에 更强

商況 (十二日)

前場反落 休日을 지난今日은 依然 大勢 … 人氣動搖關係도 잇서 結局 再昨日보다 東新一圓安인 百二十六圓八十錢、日產一圓安인 七十二圓九十錢에 各大引。鐘新百十四圓八十錢、東京電力八十四圓七十錢 日觸新二十五圓七十錢 滿鐵新二十六圓了이엇다。

◇東新 一二六·八〇(六) 一二七·三〇 一二六·五〇 一二六·八〇(引)

◇日產 七三·〇〇(寄) 七三·〇〇 七二·六〇 七二·九〇(引)

後場更强

後場은 東新百二十六圓八十錢、日產 七十三圓三十錢에 保合寄後 雜株更進으로 東新百二十七圓藥、日產 七十三圓에 强調이고 別欄가티 大引

諸株一齊反落

米國財界好調를 氣勢하게 感受

東新依然反賣

東新은 過買라 當分 買過反動을 期할수업고 最近은 不良取引員 整理問題를 압두고 一向 熱이업스며 現物의 利喰買物이 潛在하야 더욱 되지못하는데다가 高價에는 中堅株가 反落도잇서 新規買가 高調 伸力이 不한데 이 東新의 無勢은 一般의 氣配를 冷却케함에 充分하며 雜株高로 最後에 東新을 買付케되다면 그는 도리어 警戒感가 아닐가 보는者만하 東新은 依然 反賣를 主張하는 모양이다。

하야 生絲가 高는데 好感되고 이어서 協力豫算으로 昨年度東亞事變부터 好感도어 輸出不振의 纖維工業株는 氣運實反撥이 되엇다。

豫算編成難!

明年度 豫算編成에對하야는 日米協力豫算이라하야 好感되어 市勢高의 一轉機가 되엇스나 軍部의 膨大한 豫算을 筆頭로 各省의 新規要求가 만어서 大藏省과 各省의 協議에 不拘코 今年度豫算 突破必要로보이어 高橋財政의 健全財政主義와 公債漸減方針이 어떠케될가? 未曾有의 豫算編成難에 直面키에 至하얏다。그리하야 今後의 財政이 果然 어떠할지 株界로서는 單純히 樂觀不許이오 赤字公債와 增稅 두틈에 끼어 一喜一悲의 市勢가 더 緊張될 일듯도하다。

立會時間繰上

九月一日實施

朝取證券部 立會時間은 九月一日부터 前後場共히 各十分繰上하야 前場은 午前九時 二十分부터 後場은 午後一時二十分부터 立會키로 決定하얏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六	五三	五一〇
東新	四五	四八	七六八〇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 東新、日產各一圓又落、雜株도 一齊低▲그만 오를데는오른가? 東事件突發로 人氣動搖되어 代로 講하얏슴뿐아니라 上進할 條件도 次次 具備되어가니 雜株高로 東新까지 熱이 생긴다면 意外의 活躍을 可期이겟다는것이 强氣의 主張▲東新이 鈍重하야 軍工業株를 비롯한 其他株의 膨勢를 牽制하지만 이는 市勢自體가 弱한때문이 아니오 이로서도 리어 上市勢를 穩健케한다고 樂觀▲그러나 이에對한 弱氣는 軍工業株市勢가 單純한 再反動에 止할뿐이며 이로써 全般의 活況을 바라기는 어려울것이고 東新其他 問題株의 嫌氣는 容易히 除去되지안흘것이니 미리가는市勢를 바라다가는 不利를 招할 念慮가 잇나고 反抗▲오늘이 末伏이라 時節은 生存에 向하는데 市勢에도 淸冷之氣가 생길것이냐? 老炎인最後大底가 잇슬것이냐?

米

阪神地方의 水害는 一場暴騰을 豫期하엿든바이나 阪地는 겨우 六丁反高 當地는 九丁反高▲그런데 反撥의程度가 너무 輕微한편이엿는데다가 二節부터 假低反落하야 阪地二十九圓八十錢으로 當地는 二十七圓六十錢으로 反落▲그原因의 所在는 阪地買方 田中眞一派와 地場某有力側間에 當限五千石을 解合하엿다는 關係이라고 것이 아님으로 남어지石數를 如何히할가함이 問題▲그러나 當地當限은 幾分低落을 示할뿐으로依然低壓味를 添하고잇다▲果然 當地當限이야 말로 至穀買가 多하모양이니 納會되기前에 一場爆發을 示할지도 亦未知이라고 云云 果如何▲그런데 阪神地方의 水害는 開花期前임으로 그다지 被害가 크지안흘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有害無益▲그러고 이로부터가 天氣의 如何를 注目할時期엇다▲土用도 無事經過하고 今回 颱風도 큰 被害가업는모양이나 압흐로 三大厄日이 問題

期米 嫌氣賣로 下落

前場急落 休日後인 今朝는 阪地五丁高인 三十圓二十四錢 當地는 九丁高인 二十七圓九十七錢에 買人氣로 始하얏스나 阪地漸落으로 四節에 三十圓割로 二十九圓九十錢에까지 내려지고 九十二錢에 止하얏다 當地도 五節 六十錢에 作하야 急落되엇다가 六十七錢에 止하다

後場下潑

後場은 二十七圓七十錢에 二丁高로始하야後二節七十二錢이잇고 三節七十錢 四節七十二錢에 細刻이고 別欄가티 止하다

阪神水害無視

市勢反히低落

昨年의 水害地인 阪神地方은 去九日夜부터 豪雨가 襲來하야 農作物의 被害가 不少하야 定期米도 保合이지 못하야 後場은 九圓七十錢까지 反落을 告하엿스나 當限은 新米출의 往來할뿐이다 勿論先限은 依然 往來할뿐이다 限月이지만 實質成算수도 잇스나그러나 當限만은 新米의 滿期이 如意치못하고

當地當限頑强

先限低落不拘

阪神地方의 水害로 買氣 자못 熾烈하야 阪地當限은 三十二圓三十錢의 高價를 示하자 阪地의 唯一한 買方인 田中眞一派와 地場某有力側사이에 當限五千石解合이 成立됨에 짜아 反落하엿다는說이 잇스며 當地亦 그餘勢를 受하야 先限은 七圓六十錢 中限은 九圓七十錢까지 反落을 告하엿스나 當限은 依然 往來할뿐이다 勿論先限은 新米의 限月인만치 實質成算수도 잇스나그러나 當限만은 新米의 滿期이 如意치못하고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田中眞、地場間에 前日後場三十圓十八錢에 六千石解合이되어 小口 嫌氣를呼하야 反落이엇다 賣方 來客側 中東側 正米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仁川】

本月十日 現在仁川在庫穀物은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一〇、九三七叺의 減少量 示하엿는데在品者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三三一(民)五三、四二八叺 五斗入叺、九九三叺▲白米七〇〇叺▲正租叺入(政)八六、九五二叺(民)二三、六〇一叺俵入(政)八六、九五二俵(民)三三、六〇一俵入(政)八六、九五二俵 ▲小豆一四七叺▲大麥一二二叺(裸)三四五叺▲小麥一二五八叺▲精白米一〇五叺▲粟四、九二七俵▲荏子一八二叺▲黍一、一二三俵▲蕎麥一、〇二五叺▲糯米二七四叺▲日本內地米六六三俵

趙俊鎬米豆仲介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今日의財界 (十二日)

◆米 (單位圓)

◆株 (單位圓)

◆金錢

◆市中金融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下放

京城正米는 移入減을 압두고 終日하야 正米도 [illegible]

仁川氣崩

仁川正米는 [illegible]

釜山小康

釜山正米는 [illegible]

群山保合

群山正米는 日本內地의 期米의 [illegible]

大邱膠着

大邱正米는 [illegible]

木浦反落

木浦正米는 定期의 [illegible]

南浦不變

南浦正米는 定期의 反落을 보고도 [illegible]

滿洲市勢

京城雜穀

京城正米

仁川正米

仁川大豆

大阪正米標準價

京城綿絲布市勢

日本麥粉市勢

위스키油期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豆油沖價

豆粕沖價

金融 十二日

◆海外經濟◆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手形交換高◆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株式 十二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長期◆ ◆東京現株◆ ◆朝取新期食賣買高◆ ◆實父代引日步◆

[illegible]

米 十二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朝鮮內各地期米◆ ◆朝鮮期米賣買高◆

[illegible]

商品 十二日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